

메가시티 야심찬 청사진 “동북아 8대 경제권 진입”

지방소멸 위기 타개·균형발전 모색
부울경·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권
4개권역서 초광역 특별지자체 추진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논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서 광역단체들이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

체(메가시티) 정밀청사진을 제시하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다.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내년 1분기 출범 예정인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메가시티다. 이들 지자체는 오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 수도권,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함께 동북아 8대 경제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를 491조원으로 키우고 지방자치 권한 강화와

국가사무 이양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50.3%에서 6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1개에 불과한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스타트업은 2040년까지 15개 이상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3.6%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현재 78만2천명인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연간 3만명에 달하는 청년인구 유출 상황을 순유입으로 반전시키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여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고 문화 공동체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미래산업의 메카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갖고 2024년까지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2040년 인구 600만명, 2000개 국내 기업 유치, 24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등은 충청권을 인공지능(AI), 메타버스(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상이나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를 중심으로 단일 경제생활권 메가시티로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미래형 혁신 인재 1만 명을 육성하고 공학·항만을 연계한 한태평양 글로벌 허브로 성장해 국가 혁신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추진 중이다. 2040년 인구 550만명, 실질 GRDP 300조원, 벤처·중소기업 5000개, 외국인 관광객 800만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남해안 남부권을 신성장동력으로 도약시키려는 메가시티 전략이 추진 중이다. 2040년 인구 500만명, 실질 GRDP 200조원, 2000개 기업 유치,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이곳의 초광역 협력사업은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200% 초과 생산분은 수도권 등에 공급하는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호남 RE300) 구축, 웰에이징(well-aging·건강 노년맞이) 휴먼 웰스케어 밸리 조성까지 포함해 4건이다. 이 밖에 남도 달밤 예술 여행지 육성, 2038 아시안게임·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8) 유치, 국가 균형발전 제도 개선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광역시가 없어 국가 균형발전 구상에서 소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도는 최근 이 3곳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해 권역별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물리적 거리로 인해 한 덩어리로 된 메가시티 구상이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 새만금·전북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 권역 등 독자적 특화발전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총합/ 김윤미기자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급물살 국토부에 ‘승인신청서’ 제출

LH, 내달 7일 주민설명회 개최 내년 하반기까지 행정절차 완료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개발하는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7일 국가산단단지 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승인신청서에는 승인 대상지의 위치·면적·토지이용계획과 주요 유치업종, 산업단지 조성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교통 영향 등이 담겼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275만3000㎡) 중 산업단지용지 135만6000㎡(49.2%), 공공시설용지 89만9000㎡(32.7%), 주거용지 32만4000㎡(11.8%), 복합용지·상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17만4000㎡(6.3%)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유치업종은 신소재와 첨단부품이다.

LH는 내달 7일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국경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인 세종스마트 국가산단단지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13580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세종시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다. 시는 조만간 LH 세종도시교통공사,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준희 시장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행정절차를 서둘러 마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를 내실 방침”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사랑의 연탄 나눔 29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열린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에서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들과 에스디바이오센서 임직원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다. (공동취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궤도’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중산4구역 등 7곳을 오는 31일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추진 후 처음으로 본 지구로 지정되는 후보지는 규모가 가장 큰 중산4구역(4112호)을 비롯해 신길2(1326호)·방학역(408호)·연신내역(427호)·쌍문역 동측(646호)·쌍문역 서측(1088호)·부천원미(1678호) 등 7개 구역으로 서울 도심에 1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57곳(16만호)을 확정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산4구역 등 7곳 첫 본지구 지정
주민분담금 8천만~2억4천만원
민간경비사업비 30% 이상 낮아

이 같은 공급 규모는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조성된 분당·관교·광교 등 신도시 3곳에서 공급된 주택을 모두 합친 수준(16만호)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특히 16만호 가운데 서울 9만호를 포함해 14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에 입지해 있고 나머지 2만호는 도시에 집중돼 있어 도심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 본 지구로 지정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8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구별로는 경기 부천원미의 평균 부담금이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쌍문역 서측(1억7000만원), 쌍문역 동측·연신내역·신길2(1억3000만원), 중산4(9000만원), 방학역(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부천원미가 5억70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신길2구역이 7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의 분양가도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84㎡ 일반공급 분양가는 신길2구역 8억9000만원, 연신내역 7억5000만원, 중산4 7억3000만원, 쌍문역 서측 7억2000만원, 쌍문역 동측 6억7000만원, 부천원미 6억5000만원, 방학역 6억4000만원 수준이다.

서영미기자 seo@jeonmae.co.kr

경기도,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가속화

경기도가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역 균형발전 기여 및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8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내년까지 모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면서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일산·양주 테크노밸리 등 2곳과 남부 제3판교 테크노밸리·용인

플랫폼시티 2곳 등 4곳에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전체면적 대비 높은 수준(21~55%)의 자족용지로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대화동 일원 87만2000㎡에 사업비 8498억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6년 최초 입지선정 이후 올해 8월 실시 계획 인가 완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부지조성에 착수해 2024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마전동 일원 21만8000㎡, 사업비 1104억원 규모다.

기존 섬유, 패션, 전통제조업 등 지역기반산업에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을 육성해 북부를 대표하는 첨단제조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보상 및 하반기 공사를 착수한다.

일산·양주·제3판교·용인 등 4곳
내년 행정절차 완료·순차적 착공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3000㎡ 규모로 사업비 133756억원이 투입된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연계한 산업 육성, D.N.A(데이터·네트워크·AI) 산업 유치,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근 기업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거 가능 보안을 위해 전체면적의 약 28%(16만4000㎡)가 주택용지로 공급되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마복동·신갈동 일원 약 275만7000㎡에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6조2851억원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경부고속도로, 신교통신단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래교통수단을 구현하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갖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내년 보상 절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착공해 준공은 2029년 상반기 예정이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건강관리 의 시작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위원회
문의 : 032-890-8700

기획특집 도봉은 지금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 선도

LINK FOR NEXT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시간을 연결하고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한 연결,
LX가 시작합니다.

LX

단신브리핑

한우광역브랜드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차지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전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지리산순한한우'와 '복색한우'가 명품브랜드로 선정돼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는 (사)소외사회민모임에서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증받은 경영체 중 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브랜드 관리가 우수한 경영체를 선정했다.

지리산순한한우와 복색한우는 일관된 품질관리, 인종적 공급능력, 브랜드 및 위생안전 관리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한우 분야 전국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NH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리산순한한우는 순천, 고흥 등 전남 동부권 9개 시군 600여 농가가 참여한 전국 최초의 한우 광역브랜드다. 2017년부터 5년 연속 '명품인증'을 획득했다. 복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의 복색한우는 목포, 무안 등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 300여 농가가 참여한 브랜드다. 그동안 축산물 브랜드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3회 차지해 명품인증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2008년부터 도가 집중 육성한 한우광역브랜드의 인종적 유통망 확충을 위해 한우 가공장 시설을 지원하고, 농가를 조직화한 결과, 전남 한우가 전국 대표브랜드로 성장했다"며 "지속적인 한우 가공사업으로 전국 최고 한우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약/ 권성용 기자 sy@jeonmae.co.kr**

노인·차매 통합지원 상담콜센터 운영

경기 성남시는 내년 1월 3일부터 '노인·차매 통합지원 상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담콜센터는 시청 노인복지과에 신설되는 노인차매팀에 속해 차매 환자와 가족 상담을 전담한다. 콜센터 대표번호는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팔팔하게(88), 구수구수까지(99) 살자'라는 의미의 번호 부여해 만들었다.

전문 상담원 2명이 배치돼 문의 전화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한다. 노인복지, 차매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이하고 통합복지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하면 외부 자원을 연계해 준다.

상담콜센터가 속한 시청 노인차매팀은 지역 의료·복지·돌봄·문화·안전·보조 분야 9개 기관·단체와 함께 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일영 기자 leey@jeonmae.co.kr**

시청사 별관 건립 아이디어 공모전

세종시가 미래지향적인 시청사 별관을 건립하고자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시청사 별관, 청년들에게 묻다'로 정했으며 참가 대상도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의 충청권 소재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

접수 기간은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이며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2작품, 장려상 등 우수작에 대해서는 세종시청사와 소정의 상금(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공모참여는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설명서 및 패배를 마감일까지 시청 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별관 건립 설계공모에 활용될 계획이다. **세종/ 유양준 기자 yjy@jeonmae.co.kr**

“공공기관 유치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양승조 지사, 홍성 방문 도정 주요성과 보고·현안 논의 “市 승격” 등 미래 발전 전략·과제 중점 지원할 것”

충남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충남혁신도시 완성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29일 홍성군을 방문,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7기 도정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미래 발전 전략과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내포KBS유지, 도청 소재지 군의 시 전환,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국립과대학(공공의대) 설립,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홍성군이 미래 발전 전략 및 과제로 설정한 '충남혁신도시 현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포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미래성장 사업 기반 조성, 남당항 해양관광 거점 어항 개발 등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철도-서해선 연결 사업 조기 추진,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내포신도시 촉사 이전·휴업 추진 등 홍성군 현안 사항에도 도의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선7기 도에서 지원한 핵심 사업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조성, 가족센터 건립, 홍성형 유기농업 프로젝트, 어촌뉴딜 300사업,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홍성북합문화 창업 공간 '잇슈' 창고 구축,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역사재민공원 조성 등을 보고했다.

양 지사는 “홍성군은 역사와 전통, 지리적 여건과 관광 등 모든 것을 갖춘 풍요로운 고장”이라며 “이러한 홍성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충남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수부 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해맞이 인파 차단...속초해변 출입통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맞이 인파 집중을 막고자 오는 31일 오후 10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속초해수욕장 전 구간을 폐쇄하기로 한 속초시가 29일 해수욕장 주변에 출입통제용 안전선을 설치하고 있다. **연영남 기자 yny@jeonmae.co.kr**

경남도, 노동시장 활력 회복 '안간힘'

고용인정 선제 대응 지원센터 등 효과...청년일자리 등 개선 성과

경남도는 올해 노동시장 활력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세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중년 세대의 수요에 맞는 생애 재설계 지원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왔다.

올해는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해 고용인정 선제 대응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112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신성장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통해 530명의 스마트인재를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역별 일자리 등 1만

1500여개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했다.

취약노동자의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2000명이 고용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산업 맞춤형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으로 스마트 산업, 로봇, 항공, 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 기반 전문인력을 양성해 46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해 486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도와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213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늘어난 신중년 퇴직 인력의 경제활동 지원과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도 있었다.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128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뤘다. 신중년 고용 촉진을 위해 '내일어른50+사업'으로 110명에게 최대 2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했다.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해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과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으로 현재까지 1170여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원/ 김현진 기자 kimh@jeonmae.co.kr**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지역관광 명문화 운영 '결실'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유명 골목거리 7곳을 지역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관광테마골목' 사업을 검증하고 알리기 위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약 1700명이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개발한 사업들을 검증하고 홍보하기 위해 알찬 체험객을 광개 포집해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시범 운영해 약 1700명이 체험을 완료했다. 이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74점을 제시했다.

체험단이 참여한 관광 프로그램은 김포 군하리 만세로근하길, 고양 보빛고을길 '마을역사 골목투어 프로그래',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부대찌개 만들기 VR(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화성 전곡리 마리아 골목 '골목상권 연계 산책(일몰) 요트투어',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 '천개의조기비 키트 체험' 등이다. 각각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을 제

한하고 현장 방역 인력을 투입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했다. 또 골목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면서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문성을 갖춘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 참여를 이끈 개발한 사업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로해설사가 갖 사양성, 관광과 캐칭교육, 음식 매뉴 저문 등의 역량 강화 지원을 했다. 아울러 골목 공동사업

3개월간 시범운영 1700명 참여
골목별 핵심사업 개발·경쟁력 강화

으로 유명인 등을 섭외해 골목별 1회씩 홍보 투어를 실시했고 유튜브와 방송 홍보도 병행했다.

한편 도는 내년 신규 선정할 4개 골목뿐만 아니라 기존 골목들까지 여행객 권 연계 산책(일몰) 요트투어,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 '천개의조기비 키트 체험' 등이다. 각각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을 제

경북도 대표 홈페이지, 올해 웹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이용자 편의성 향상 등 도모

경북도는 29일 대표 홈페이지가 '웹어워드 코리아 2021'에서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 대표 홈페이지는 비주얼디자인, UI/UX,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평가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용한 도정정보와 도민 관심사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도는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 대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노력했다.

또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PC환경과 모바일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 디자인,

UI, 기능 등을 개선했다. 도정 이슈를 메인화면에 적시해 도민에게 알리고, 도지사에게 비판다 코너를 통해 도민과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러 부서별 홈페이지를 통합해 대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부서의 분야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월 45만 명(연간 540만명)의 방문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최유진 도 대표인사는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감각적인 캠페인용과 역동적인 비주얼을 연출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표 홈페이지가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신문기자 shiny@jeonmae.co.kr

수원시, 복수동성당 담장 허물고 시민 통행로 개방

경기 수원시는 전주고 수원교구와 함께 복수동성당 담장을 허물어 행궁동 '왕의 골목'과 화성행궁을 잇는 탐방로를 만든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교구는 29일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복수동 왕의 골목 화성행궁'을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교구는 시가 복수동성당 노후 담장 정비, 공공통행로 조성, 주차장 개선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을 승인한다. 준공 후 공공통행로와 주차장·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시설을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재생 미중점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

공사를 한다. 수원교구는 시설 공사비의 10%를 부담한다. 세부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수동 왕의 골목, 복수동성당, 정조로(화성행궁)로이'는 공공행궁을 연결하는 공공통행로를 조성해 내년 1월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공공탐방로는 화흥문 부근 수원천에서 시작돼 왕의 골목, 복수동성당, 정조로(화성행궁)로 이어진다. 복수동성당 뒤편 담장을 허물어 공공통행로를 만드는 데 통행로가 조성되면 왕의 골목과 정조로가 직선으로 연결된다. 관광객·시민들은 왕의 골목을 걷다가 복수동성당을 둘러보고 성당 정문으로 나가 화성행궁으로 갈 수 있다.

수원/ 박선식 기자 sspark@jeonmae.co.kr

함께 만드는 동행하는 변화. **용산구의회가 시작합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용산구의회는 용산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고성군 공고 제2021-1646호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성 군 수

- 사업개요**
가. 사업명: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나. 위 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병리 471-60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주)이랜드파크
라. 승인기관: 강원도
마. 사업기간: 2021년 - 2029년
- 주민공람 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2021년 12월 30일 - 2022년 1월 27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하고 20일 간)
○ 공람장소: 고성군 관광과, 토성면사무소
○ 공고·공람 게시: 고성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및 토성면사무소
-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2022년 1월 7일(금), 14시
○ 개최장소: 토성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주 관: (주)이랜드파크
- 주민의견 제출**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고성군 관광과에 서면 제출
○ 제출기간: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관광과(☎33-680-3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퇴계의 옛길을 걷다

퇴계의 길을 따라

김병일(도산서원 원장 |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한국의 서원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퇴계에게 길을 묻다
퇴계의 선비정신을 알려준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이 인생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

신국판 윌러 - 258쪽 · 17,000원

www.nanam.net Tel. 031-955-4801

李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언급한 데 이어 취득세 조정 카드도 꺼낸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제도로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이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개편은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 부동산 특약에서 잠시 논의된 바 있지만, 그동안 중요한 이슈로 다루지 못했다. 정부에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바는 없다.

그러나 기존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서둘러 추진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면서 다시금 당정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흔들려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



故 김근태 10주기 추모 행사 참석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있다.

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

영되지 못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신우기자 leesu@jeonmae.co.kr

전국 257개 대학 정원 줄인다

정부가 1400억원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대학이 교육 역량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사업 규모는 일반대 153곳 7850억원, 전문대 104곳 4000억원 등 총 1조1970억원이다.

올해 사업은 각 대학의 자발적 혁신과 적정 규모와 혁신을 중점에 둔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확장인수는 36만명 감소했으며 대학 신입생은 24만명 줄었다. 이 기간 대학 정원 감축은 신입생 감소 인원의 70% 수준인 17만2000명

이었다.

각 대학은 2023~2025년 적정규모와 계획과 특성화 전략, 개비년도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반대 6280억원, 전문대 3450억원 등 재학생·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된다. 지방보다 비교적 총원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도 해당하는 셈이다. 일반대 1곳당 사업비는 42억7000만원꼴이다. 각 대학 총원율을 5% 권역(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별 기준 유지총원율로 점감한다. 기존 총원율은 최근 2년간 신입·재학생 총원율과 대학의 적정규모와 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정하고, 10월에 점검에 내실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권역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년차(2023년)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257개 대학 기준 30~50%는 77~128곳이다.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이 제한된다. 인센티브도 활용된다. 일반대 정원 감축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와 계획을 수립한 곳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대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그중 올해의 미충원 분을 초과하는 산체적

감축 계획을 세우면 일반대는 1곳당 최대 60억원까지 총 600억원, 전문대는 1곳당 24억원까지 총 240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올해 미충원 규모 내에서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감축 목표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확실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들의 문제로 지적되는 정원의 선별 인원으로 사업비를 통해 조정한다. 기회균형·재외국민·해외유학생 등 정원의 선별이 기준(118%)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외의 선별인원이 해마다 다 달라 교육의 질 보장, 교원 확보가 되는 산체적 원리·의 충실로 관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단종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대학 중 일반대 6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 3곳, 전문대 1곳) 위 1곳) 에도 총 180억원, 전문대 7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 5곳) 에도 총 1400억 인센티브로 선제감축... 정원내외 총량 관리

4곳, 전문대 위 1곳)에 총 1400억원 지원된다.

앞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전국 52곳이 탈락했지만, 국립 예산 처리 과정에 13곳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학생총원과 교원총원을, 졸업생총원을 총 학생총원과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 계획을 선별 예정이다. 이들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역별 유지총원율 점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 내에는 마태효과, 반도제, 스마트대학 산하분야 중심의 ‘부처 합동형 인재상’(2022~2024년) 계획이 신설돼 7개 부처가 14개 사업에 참여한다. 2022년도 기준 40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3월중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최소 수준의 고등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평가, 지정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에는 18곳(일반대 9곳, 전문대 9곳)이 지정됐다. 2023학년도에

전국 257개 대학 정원 줄인다

김영미기자 kym@jeonmae.co.kr

‘사용종료’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관리비용 분담 갈등

추가 관리비용 1206억 부족...서울·경기 “못 내” “사후 비용 뒤늦게 지자체 부담하는 것 비합리적”

20여년 전 쓰러져 매립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지의 사후관리 비용 1206억여원을 둘러싸고 서울·경기도와 매립지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2000년 매립이 종료돼 현재 골프장으로 활용 중인 제1매립지는 외부기관 조사에서 19년 이상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009년까지 19년간 제1매립장을 추가 관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1342억원 규모다. 기

존에 마련해둔 제1매립장 사후관리금(2002억원)이 136억가량만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06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공사는 사후 관리재원 확보방안을 찾기 위해 해 지난 6~10월 한국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용역을 맡기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됐다. 공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1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한 수도권 3개 시·도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각 사업장이 사후관리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매립장 매립 비중은 서울시 39.4%, 경기도 16.8%, 인천시 8.2%, 사업장 35.5% 등이다. 다만 민간에서 반입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사후 관리비용은 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만큼 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20년 전에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의 사후 관리비용을 뒤늦게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이들 시·도는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사업장폐기물 사후 관리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반입한 생활폐기물 사후 관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가 벌칙금으로 내는 수수료로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어긴 지자체는 초과 반입량만큼 추가 수수료를 내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고한 인천시는 지자체가 추가 관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2040년 이후 관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사후관리 재원은 원인자인 지자체가 분담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진/맹정수기자 mchs@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질병관리청 2021.12.17.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파티룸 방역패스·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가능합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 개인 휴대전화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식사는 짧게, 장시간 대화는 자제하기**
-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 *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하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 특히,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할 때에도 이용자 간 거리두기

더

안전한
나은 일상

공통 주의사항 |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자대결, 이재명 37.4%·윤석열 29.3%... 오차범위 밖

당선 가능 후 46.4%·尹 33.5%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28~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37.4%, 윤 후보는 29.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1%포인트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7.0%,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4.2%, 새로운미래 김동연 후보가 1.0%로 뒤를 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3.2%, 모름·무응답은 6.0%로 부동층이 19.2%에 달했다.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후보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후보가 46.4%, 윤 후보는 33.5%였다.

내년 대선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1.9%로 집계됐다. '결정했다'는 응답은 57.2%였다. 특히, 18~29세의 70.3%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30대에서도 같은 대답을 한 응답자가 51.7%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검증 범위에 대해서는 61.1%가 '후보자 본인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검증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대선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는 49.2%가 '정권 교체에 의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밝혔고, 정권 유지론은 39.8%였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약 10%포인트 높게 나타났지만, 지난 10월 29~30일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 53.6%, 정권 유지론 36.9%로 격차가 16.7%포인트였던 데 비해 줄어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43.9%, 부정 평가가 51.9%였다. 지난 조사(10월 29~30일) 대비 긍정 평가가 2.8%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3.1%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5.0%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이 32.6%였다. 정의당(4.4%), 국민의당(3.9%), 열린민주당(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0.0%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김종인, 선대위 정비 속도전...총괄상황본부 역할 강화 전망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장 주도의 선대위 내부정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와의 교감 아래 의사결정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총괄상황본부팀을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의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운영 방식을 새롭게 만들겠다"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한때 거론됐던 '6본부장 일괄 사퇴' 등 인적

쇄신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김 위원장의 직할 조직인 총괄상황본부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총괄상황본부가 각 본부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후보 비서실을 사실상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단기 목표는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정책의 유기적 조화를 일컫는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尹 “野 통신조회” 공수처에 책임 묻겠다”

野의원 60명 이상 통신기록 조회 “문대통령·이재명 왜 아무말 없나”

TK서 박 전 대통령 사면 메시지 고심 신한을 현장방문...문정부 탈원전 비판



윤진 원전 건설 현장 관계자 설명 듣는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을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메인전망대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습장·이종민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기록을 무더기 조회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하나 늘어난다. 일등공신은 공수처”라며 이렇게 적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명 이상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이뤄진 상황이다.

윤 후보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요즘 공수처를 보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사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대선후보 대변인 통신기록은 왜 조회했다.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한 거 아닌가. 야당 국회의원을 통신기록은 왜 또 그렇게 많이 들여다봤나”라며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하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아무런 말이 없나.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기록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과거 자신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는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낯설지 않다’고 반발하더니 왜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압력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사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보수 텃밭’ 내 대구·경북(TK) 방문에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윤 후보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텃밭 민심을 다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31일 8시를 기해 사면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고향”을 찾는 일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첫날 일정은 대어 견제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이날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을 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인동으로 옮겨 경북 선거대책위를 띄웠다.

한지 언론 간담회, 미래 산업인 ‘로봇’ 관련 기업인 현대로보틱스 방문 일정도 소화했다.

이런 TK 방문 일정과 관련해 윤 후보는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與,尹 토론거부 “대권후보 자질 없어”

이용빈 “대통령 되겠다는 건 어불성설”

김두관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 공화국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TV 토론 회의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윤 후보가 사실상 ‘토론 거부’를 하고 있다며 대권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지난 28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토론에 대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농성에서 “윤 후보는 칼럼 선거의 대항수 TV 토론을 ‘물타기 토론’이라고 억지를 부린다”며 “지금 깨끗한 정책 선거하기 전에 오염수로 물타기 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한인 진단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토론을 ‘싸움밖에 나지 않는다’고 규정해버리는 윤 후보의 말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본인이 싸움으로 인했다고 모든 토론이 진흙탕이고 네거티브인 것은 아니다. 토론을 겁내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철 의원은 SNS에 “토론 같은 거 없이도 국민들이 선택해줄 거란 오만인가? 아니면 ‘1일 1명만’이 토론에서 극대화될까 겁나는 건가?”라고 썼다.

그는 “이렇게 가다가는 3회의 법정 토론도 핑계를 대고 거부할지 모른다”며 “토론 싫어, 외교 풀라, 망언만 잘하는 윤석열 후보. 대선 결과는 둘째치고 완주는 가능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줘야 할 토론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이재명 특급’ 만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모습은 이집트로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창래 의원은 “모르는 게 없는 후보와 싸워야 하는 이는 게 없는 후보 비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윤 후보의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두관 의원은 ‘민정수석실 폐지는 검찰 공화국 선언인가?’ 라는 제목의 SNS 글에서 “윤 후보는 최근 없애겠다는 주장을 자주 한다. 세월호 사고 뒤에 ‘해결을 위한’ 박근혜 전 대

통령이 다시 돌아왔나 싶은 정도”라고 했다.

그는 “부인 김건희씨가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 부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하니,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고 한다”며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권을 세우겠다는 검찰의 야욕을 윤석열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윤 후보는 외국에 영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의 아내 (the President's wife)를 the First Lady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총장 그만두고 (정치) 과외받은 8개월 동안 가르치지 않은 영어 과외 선생 잘못”이라고 비꼬았다.

신동근 의원은 윤 후보가 전남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평문까지 수준의 말만 하고 있다”며 “선명당이 사람 잡든 윤 후보 식의 안이하고 단순하기 짝이 없는 외교관 보란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尹·李, 선대위 운영체계 놓고 평행선 이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운영 운영체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당 분열상을 드러낸 야권 내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한 듯 서로 공개적인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표정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론’을 띄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잘 될 것”이라며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증세로 윤 후보와 이 대표 양측이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선대위 복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대표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지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도 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선대위 안에 있던 밖에 있던 당의 대표이고, 당의 목표인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따로 만날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한 번 만나기는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아직은 불협화음은 휴전에 가까운 기류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선대위 인적 쇄신 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 현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운영방식을 새롭게 만들겠다”며 선대위 인적 개편에 제차 선을 그었다.

정권교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선대위에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생

각을 존중하면서 인적 개편 대신 ‘효율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대표 역시 “제가 선대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기 전에 참여를 언급하는 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철근 당 대표 직무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러바 윤혁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등 핵심 그룹은 후보만 보이고 문제

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이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서는 파이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30대도 중요, 수도권을 키워려면 윤 후보와 이 대표의 리얼리티는 개념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를 압박하는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도 변수다.

이 대표로서도 당 내부에서 “지중 하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급기야 초선들이 단체행동까지 나서면서 부당히 커진 셈이다.

이 대표가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포용적 기조로 말하긴 했지만, 지금보다 갈등상이 악화될 경우 대표 입지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때와 달리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이 시점에 유튜브 채널 ‘가르세리연구소’가 ‘성상담’ 의혹까지 제기한 것도 이 대표로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하태경 의원 등 당 일각에선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세연을 고소하기로 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0과 1의 힘을 합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대로
속력의 조직 없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핵심기술을 구현할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입니다.
미래를 움직입니다. 현대모비스

HYUNDAI MOBIS Innovation for Humanity, Mobility for Tomorrow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 선도

서울 도봉구가 탄소중립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다.

구는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후환경 분야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달성을 등에 업은 2021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등급(S)' 달성, 전국 최초 서울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국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최고 등급(A)' 획득, 2021 탄소중립 경연대회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이 이를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구는 기후환경 분야와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각각 '33만 서울 도봉에 2050 탄소중립을 설계하다'와 '속의 공존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사례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2개 부문 동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등급(S)'에 선정되며 10년 연속 우수구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구가 10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동력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달성을 등 탄소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다.

이와함께 지난 9월 16일 전국 최초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는 2050년을 목표로 도봉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구는 조례 제7조에서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를 위한 이행 목표들을 명문화했다. 제8조에서는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총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연도별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바이어로 구가 2021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서 평가결과 최고 등급인 A 등급 도시에 선정됐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기업과 도시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환경 정보를 측정, 공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을 제공하며, 현재 전 세계 약 9000개 기업들과 1000여 개 도시들이 가입된 국제적 탄소정보공개 플랫폼이다.

구는 지난 2019년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 당사자로서 2020년부터 본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고 있다.

2021년 평가는 국내 17개 도시를 포함, 전 세계 95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총 8개 등급이 부여됐다. 이 중 A 등급을 획득한 도시는 5개 도시이며,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8개 도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도봉구가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달에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주관한 2021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기초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설계 선도 및 지역 특화형 시민실천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환경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매니페스토 기후환경 분야 '최우수상' 전국 최초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탄소중립 경연대회 '환경부 장관상'

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2050 탄소중립' 설계(약속, 계획, 이행, 보고)에 기초한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실천의숙' 캠페인 개최·확산, 실천요령 매뉴얼 제작·보급,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 등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서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롤모델'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최근까지 구립경로당 3곳(윗들경로당, 청학경로당, 초한약수경로당)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GCoM 한국사무국과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가 주최하고 주한유럽대표부, GCoM 아시아 사무국이 후원하는 GCoM Korea 네트워크 미팅에서 기후·에너지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국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지속가능한 속의공존장을 운영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시민교육 허브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 1회용품 사용 줄이는 '환경사랑 음식점' 지정·운영, 공영주차장 활용 태양광 보급 등이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이다.



서울 도봉구는 탄소중립에 있어 단연 선도적 지방정부로 평가받는 지자체다. 사진 위쪽부터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작품공모전 시상식,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 2050 탄소중립 실천 범구민 결의대회 참석 인사말, 이동진 구청장이 지구 모형을 다음 세대의 주역인 아동과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도봉구 제공>

이동진 구청장은 "구는 2020년 9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그린뉴딜 추진 및 탄소배출 제로(Zero) 실현을 위한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실행 원년인 올해 5만 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7대 전략,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적 과

제이자 구정의 중대 목표라는 인식 아래 탄소중립을 위해 구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탄소중립은 행정 영역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으니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도봉 뉴스 브리핑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6개월 연장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소형음식점 대상

서울 도봉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진 구청장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대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소형음식점은 내년 6월까지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표창

활성화 기여... 장기활동 위원 감사패 수여

서울 도봉구는 최근 구청 은행나무방에서 2021년도 도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을 전달하고 활성화 기여 및 장기활동 위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유공 대상으로는 베이직병원 정신건강복지과장 윤원호,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부장 심상수, 창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정지용 총 3인이 표창을 받았다. 활성화 기여 및 장기활동 위원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장 남상주,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이은경, 책읽고달라 대표 고정이,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노승안, 도봉노인종합복지관 팀장 조경아 총 5인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힘들고 긴 시간을 함께해주시는 도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폐업 소상공인 672곳 지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작해 672곳에 업체당 50만 원씩, 3억 36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운영하다 폐업한 업소로, 폐업 전 90일 이상 운영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일인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 사업은 당초 8월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신청기간 및 폐업기준일을 지난 17일로 연장해 단력적으로 운영했다.

업종별 지원현황은 유흥주점,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시설이 527곳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으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이 전체의 11.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돌봄종사자 1700명 돌봄패키지 지원

서울 강남복지재단(이사장 이의신)은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1700명의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맞춤돌봄지원사 등을 격려하고자 업무용 물품으로 구성된 '돌봄패키지'를 지원했다.

강남복지재단은 돌봄서비스의 기반을 탄탄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현재 7개 돌봄서비스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돌봄종사자 휴식공간 운영, 힐링 정기·특별 강좌 운영, 돌봄종사자 힐링공모 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돌봄가족, 돌봄종사자, 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2022년부터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동 골목 특화거리로 상권 부활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인수동 골목길을 특화거리로 만들어 상권 활성화를 나선다.

이번 사업은 삼양로 87가길 등 수유북부시장 주변 일대에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인수동 골목은 낡은 건축물과 오래된 소규모 가게가 밀집해 있어 상권 활성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지역이다.

구는 우선 15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과 도로 포장, 빗물받이 정비 공사를 마쳤다. 내년 초 인수동 골목상권 경관개선 용역을 마치고 수유북부시장 등 지역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 기반사업을 내놓기로 했다. CCTV, 가스배관 덮개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반영한 세부 계획도 구체화하게 된다.

'메타버스 도서관' 개관

서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에서 운영하는 정보화도서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가상공간에서도 도서관 서비스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도서관'을 개관했다.

'메타버스 도서관'이란, 현실세계를 동일하게 구현해 높은 3차원의 가상공간에 만들어진 도서관으로 네이머에서 운영하는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제 도서관의 모습을 최대한 구현했다.

메타버스 도서관에서는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2·2관을 실제와 유사하게 조성하여 자료실별 소장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로찾기를 즐길 수 있는 게임존을 조성해 방문자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내·외부 전체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메타버스 도서관' 입장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제페토' 앱을 다운로드한 후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을 검색하면 되며, 28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메타버스 도서관 개관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신청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나, 1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신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또는 우선(☎3396-5212)으로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제된 금액으로 2022년분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국 최초 실감미디어 라온지·메타버스 스튜디오·스마트 미래 등 서초스마트유스센터, 4차 산업 시대 주도하는 청소년 양성

서울 서초구(구청장 권한대행 천정옥)는 서초유스센터가 1년여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 1월3일 최신 미디어 시설을 갖춘 청소년 전용 스마트 유스센터의 모습으로 개관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재개관하는 센터는 지하4층에서 지상8층, 연면적 2961㎡의 규모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4차산업 체험 교육 첨단 장비를 구축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곳은 10m 규모의 실감미디어 라온지와 함께 실시간 유튜브 송출이 가능한 크로마키 스튜디오·메타버스 스튜디오·스마트 미래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이 설비로 온라인 강의, 3D 모델링, VR 콘텐츠 제작, 스마트 스포츠, 가상 발표회 및 전시 등 4차 산업 체험교육 활동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기기(정신건강 키오스크, VR을 통한 힐링)를 활용해, 스마트저서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청소년 맞춤형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스마트 마음 돌봄사업과 놀이미술치료와 언어치료 등이 가능하며, 임상심리사를 통해 종합적인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센터는 지난 20일부터 지역 내 청소년들이 센터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재개관 기념 주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오고 있다.

시범운영 중에는 메타버스 및 3D모델링 교육과 체험부드,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컬러테라피, XR기술(확장현실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혼합된 기술)을 접목한 환경기

과피 체험, 스마트미래와 크로마키스튜디오를 활용한 나만의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진행하는 정규프로그램은 서초스마트유스센터 홈페이지(http://www.scy.or.kr)에서 할 수 있다.

천정옥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4차산업시대를 주도하는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해, 시대 흐름에 맞는 청소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지역내 청소년의 스마트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서초스마트유스센터전경 (이진규 제공)

구로구, 발주 공사 설계변경 심의 기준 강화한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차단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상)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 공사의 설계 변경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변경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적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회 주관부서를 감사실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이번 지침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가 실시하는 공사 중 최초 계약금액에서 4000만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까지 설계 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했다.

또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금액의 총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단가 공사의 도입액이 신규 공정(단순 물량 변경 제외)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주관부서도 각 사업부서에서 감사실로 일원화한다.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는 구청 과장, 읍부조 등 내부위원뿐 아니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전문가까지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성북구, 퇴임 환경공무원 감사패 전달

“코로나19 위험한 현장 속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환경공무원의 노고를 잊지 않습니다” 이소영 서울 성북구청장(가운데)이 지난 28일 퇴임하는 조선용(두번째)·박근조(네번째) 환경공무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코로나19의 위험한 현장 속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필수노동자 환경공무원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노원구(☞)금융디톡스 이소영 대표...첫 여성 아너소사이어터 탄생

아동·청소년 위해 5년 내 1억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 약속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금융디톡스 이소영 대표가 지역 여성 최초 '서울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터' 336호 회원이 됐다

아너 소사이어터(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개인 기부 활성화,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일시 또는 5년 이내 1억원 이상 기부금을 납부할 경

우 정회원이다.

이소영 대표는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5년 내 1억원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지정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표는 최근 가입식에서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금융상담 및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분들의 일상을 되찾는 복지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회 공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현재 금융컨설팅을 통해 발생하는 특허기술로 전액을 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이소영 대표가 운영하는 ㈜금융디톡스는 금융과 디톡스를 합친 말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허 받은 합법화된 재무통합회사다.

한편, 기부금 전액은 기부자의 뜻을 따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송파여성축구단, 2021년 대회 2관왕...‘여성축구 강팀’ 면모 자랑

박성수 구청장 “여성축구로 송파구 위상 높이고 활력 주도해 적극 지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의 대표 구팀체육단체인 송파여성축구단이 코로나 대회까지 대폭 줄어든 가운데 2021년에 열린 대회에서 최종 2관왕을 차지하며 여성축구 강팀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여성축구단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대회에서 우승 49회, 준우승 18회를 기록하며 축구로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홈구장 세 단장 등 코로나 속에서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쓴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998년 창단한 송파여성축구단은 박영옥 단장과 김두선 감독이 이끌고 있다.

코치와 선수 등 총 30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송파여성축구장을 홈구장으로 매주 3회 정기훈련을 진행한다.

지난 11월 열린 '2021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에서 송파여성축구단은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서울시민리그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서울시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다.

여성축구 부문에서는 6개팀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11월 28일 마포구, 12월 4일 중랑구, 12월 5일 종로구 및 FC에리제와 치론 경기에 3승 1무를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민리그 우승으로 송파여성축

구단은 내년에 개최될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기회를 얻었다.

지난 12월 11일, 12일에 열린 '2021 서울시 자치구 여성축구교실 왕중왕전(이하 여성축구 왕중왕전)'에서는 3전 3승의 우수한 실력으로 종합 1위에 올랐다.

여성축구 왕중왕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축구교실과 여성축구단이 출전한다.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여성축구' 부문 대표 대회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송파여성축구단은 2019년 이후 3연패 기록을 달성한 것은 물론 코로나 위기로 축구 대회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올해 대회 2관왕을 차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서대문구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최우수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자체구축 등 호평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 구축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사례별정위원회 운영, 입양친생부모 상담, 아동보호 조서관리, 아동복지사업 운영 등을 평가했으며 구는 서울 자치구 유일하게 선정됐다.

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별정위원

회를 운영하고 아동권의 중심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또한 민관협력형 아동보호체계가 활성화돼 있는 점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서대문형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입차료 지원 등 자립 지원 체계를 자체 구축한 것도 주요 사유로 꼽혔다.

문석진 구청장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동대문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받아

가정과 직장생활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13년 최초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 받은 구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평가에서는 기관장이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확고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하계휴양소 숙박비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뿐 아니라 가족초청행사, 장기근속자 포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 대부분이 매주 금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정의 날의 운영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덕열 구청장은 "우리 구가 2013년 최초로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동작구, 리모델링 마친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재개관

공간개선으로 휴게실 등 기존에 없던 공간 등도 함께 배치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립상도4동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내달 2일 정식 재개관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관내 노후 청소년독서실의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간개선으로 연면적 200㎡(지하1층~지상1층)에 총 52석 규모(남 16석, 여 16석, 공동 20석)로 새롭게 조성됐으며, 휴게실 등 기존에 없던 공간 등도 함께 배치했다.

공사 시작 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세련된 도서관 디자인 설계, 오픈형 열람실 도입, 스티디룸 공간 확보, 키오스크 이용자

가 직접 좌석을 선택하고 요금을 결제하는 무인 정보 단말기 및 백색소음기 백색 소음(화이트 노이즈)를 출력하는 장비로써, 소음을 중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집중력 및 업무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기 설치, 최신형 의자 교체, 화장실 개선, 복합기 및 개인 사물함 비치 등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건립한지 32년 이상 경과한 구립상도4동 청소년독서실(상대로11길 67)은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오랜 기간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가 있었다. '동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은 2019년 말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이 프리미엄급 시설로 리모델링해 큰 호응을 얻자,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의 개선을 제안하는 등 공간 개선이 본격 공론화됐다. 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청에 응답해 금년에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고,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이달 말 완공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종로구, 구립 어르신합창단·궁중무용단 단원 모집

서울 종로구는 내년 신규 창단을 앞둔 종로구립예술단 내 '어르신합창단'과 '궁중무용단'에서 활동할 단원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립어르신합창단은 유급단원과 일반단원으로 나눠 선발한다. 유급단원은 만 20세 이상 반주자, 지도단원, 소프라노, 바리톤을 1명씩 뽑으며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만주자는 피아노, 소프라노 및 바리톤은 성악 전공에 한함) 졸업자 또는 동등자격 취득자이다.

유급단원은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14일까지 종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전자우편(song@jfarc.or.kr) 또는 우편(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6층) 제출하면 된다.

일반단원은 기본적인 음감을 가진 만 61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내년 2월 4일까지

접수한다. 단원으로 선발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열리는 정기연습에 참여해야 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무대에 서게 된다.

구립무용단은 일반단원을 모집하며 만 20세 이상 구민으로 서류와 실기·면접 심사를 거쳐 총 2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6일까지 종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dance@jfarc.or.kr)로 제출하면 된다.

단원으로 선발되면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정기연습에 참여해 실력을 키우면서 전문 강사로부터 총연무와 검무 등 전통 궁중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종로구립합창단' 및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 역시 내년 2월 4일까지 신규 일반단원 신청을 받는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불법주정차 전동킴보드 견인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내달 3일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킴보드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주정차된 전동킴보드를 견인키로 했다. 견인은 전동킴보드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개인소유 제품은 제외된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전동킴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 보도에 주정차된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킴보드는 신고 시 킴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신고 방법은 '서울시 전동킴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동킴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향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강동빛살머니 30억 추가 발행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중흥신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강동빛살머니'를 30억 원 규모로 29일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동빛살머니는 29일부터 구매할 수 있고,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해서 판매하고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 원이다.

구입은 강동농협, 동서울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회원신청서 작성 후 구매하거나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그레서울'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구매할 수 있다. 그레서울 앱을 통해 하거나 현장판매대행점(관내 강동농협, 동서울신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할 수 있다.

강동빛살머니는 등락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대형 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은 제외)한 중흥신선불카드형 지역화폐다. 중흥은 그레서울 앱을 통해 하거나 현장판매대행점(관내 강동농협, 동서울신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3차 백신접종 방문 서비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일오)는 29일 백신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일 방문 접종서비스를 통해 50명에게 3차 접종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방문접종팀'을 꾸려 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1일 방문접종을 실시했다. 발달장애인 접종을 위해 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2명의 교사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직원들이 도우미를 자처하며 힘을 모았다.

방문접종팀은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대상자를 한 명씩 전달하며 접종 장소 이동과 예진, 접종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도록 했다.

북악하늘길 안전하게 재정비 완료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호)는 15년 이상 많은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된 북악하늘길의 노후된 산책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구간별 재정비 공사를 시행해 총 2.9km 구간 내 데크산책로와 목교 2곳, 아자메트, 화장실 등을 교체·정비했다.

성북구의 북악하늘길은 드라이브코스 명소인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따라 북악산 안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로 모든 지역 주민의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인베스트코리아 단장으로 활동한 일란 팀블라씨의 건의로 2003년부터 구간별로 조성됐다.

북악하늘길은 오랜 기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닿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데크 산책로의 목재 및 웬스가 부식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주민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며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구는 북악하늘길 재정비를 위한 예산 17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전 구간을 재정비했다.

'기후변화대응 특별반 프로젝트' 시상·인증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2021 기후변화대응 특별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어린이집 6곳과 기특한 어린이 1605명을 최종 선발했다.

'2021 기후변화대응 특별반 프로젝트'는 날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할 미래 주인공들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38곳과 소속 원아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올해 우수어린이집 평가 결과, 최우수 아이누리 어린이집, 우수 연두 어린이집, 장려 해누리, 파랑새, 무지개, 누리봄 어린이집 등이 최종 선정됐다.

재난대응 5년 연속·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등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해 17개 공공기관 및 각종 대외기관에서 주관한 34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구는 2019년 말 직원 제안으로 대형폐기물 신고절차의 번거로움과 수거 여부 관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한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시스템'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절차 간소화 및 구수입 증대 등 여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주민생활 혁신 사례에서 혁신 챔피언 상을 수상했다.

또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한방진

흥센터 역시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최종 선정돼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홍보 및 관광 상품과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특히 한방진흥센터는 최근 서울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한국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2021년에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서울시 최초 다문화 사업 시범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2021년 세계인의 날 제14주년을 맞아 예 법무부가 주관한 정

부 포상사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구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및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한 해였지만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가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마포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최우수 기관 선정

유동균 구청장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마포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행정안전부 주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 행정안전부 1차 서면심사에서 마포구,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주)SR, 울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7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 중 마포구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3건의 재난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매뉴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황별 대응 및 복구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 결과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행동매뉴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 평가 받아 2차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마포구의 현장조치 행

동매뉴얼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재난 상황에서 마포의 대응이 표출화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유형별로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지침이다. 이번 경진대회 심사의 주요 내용은 재난 유형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매뉴얼 선정이었다.

이외에도 구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9년 연속 1등급 수상했으며, 국민안전교육 이행평가 우수기관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서울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서울시 평가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우수기관으로 뽑혀 재난안전분야 관련 평가에서 5관왕을 달성했다.



토론회 "안전한국훈련" 모습(맨 위 유동균 구청장). (마포구 제공)

구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자치구 선정 등 재난안전 관련 평가 5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 코로나19로 평가가 생략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두 해 연속 5관왕의 위업을 달성해 안전도시 마포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관악구, 침수피해 예방·하수도 정비 완료...232억 원 투입

신림동·서림동·신원동 등 10.9km 집중 정비 완료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합몰 사고예방과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해 모든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올해 사업비 232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하수관로 단위 개량사업 등 9개 사업을 시행했다.

먼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신림1·사당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으로 신림동, 서림동, 신원동, 서원동, 남현동 지역 하수관로 10.9km를 집중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하수관로 통수능력 향상과 도로합몰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단위개량사업, 응급복구 사업으로 7.6km의 노후관을 교체했고 도로상 불량 하수맨홀 95곳을 정비해 도로합몰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2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불량 하수관거 19km를 정비·완료했다. 하수도 성능 향상을 위해 우기 전 준설을 시행해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구는 2022년 하수도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70억 원을 확보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 정비 등 침수예방 사업으로 구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강서구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운영 협약서 체결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와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29일 오후 5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하고, 양 기관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추진했다.

인사운영 협약은 임용, 근무기간, 복무, 인사교류차 대우 등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양 기관의 조직·인사운영의 안정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의걸 의장은 "양 기관이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성북구의회 안향자·윤정자 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

서울 성북구의회 안향자 의원과 윤정자 의원이 최근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 대한민국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여의도 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된다.

안향자 의원은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장애인

의 생활권을 크게 향상시켰고, 윤정자 의원은 '서울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성북구 제정강박의식가구 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소외계층의 생활지원에 힘썼다.

수상 후 두 의원은 "구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도 이기본원칙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구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왼쪽부터 안향자·윤정자 의원이 꽃다발과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성북구의회 제공)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이용균 강북구의장, 서울시에 우이신설선 연장 축구 주민동의서 전달

"강북·강남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환경 개선해야"

서울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은 최근 서울시 정무 부서짐장에 방문해 우이신설선 연장에 관한 주민동의서서명서를 전달하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최선 서울시의원, 박규태 건설안전국장, 동국 국장, 장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선전문위원과 강북구민 대표로 이미영 SK

북한산시아 아파트 관리소장, 이훈시 미아무산위니아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균 의장은 "도시 철도망 계획을 검토해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우이신설선 연장을 통한 교통 환경 개선 등 생활권 확대 효과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위한 우이신설선

연장의 필요성 ▲우이신설선의 북한산으로 접근성 등을 전달했다.

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6월 우이신설선의 왕십리역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하고, 7월 경전철 교통 환경 개선 특위를 구성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유덕열 구청장(오른쪽)이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한방진흥센터에서 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과 현판을 달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은평구 '농지원부→농지대장' 명칭 변경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4월 시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원부라는 인적사항의 명칭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전환되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된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을 강화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11종의 행정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다.

내년 4월부터는 관리책임과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일원화를 통해 관리책임 명확화, 정비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도 진행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농지 임대차 등이 용역항 신고의 의무화와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에 관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내년 4월 15일 이후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10년간 보관해 농업인이 원하면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과 홍보물 등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일원화를 통해 관리책임 명확화, 정비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영등포구, YDP창의예술교육센터 개관

공유부엌·공유카페·커뮤니티 공간 예술교육 공간·세미나실·미디어랩 등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원희)가 지역 청소년의 예술 감수성 향상을 돕고 창의적인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스스로 배움터 'YDP창의예술교육센터'를 지난달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YDP창의예술교육센터'는 구(舊)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를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창의 문화에 대한 활동을 지원해 청소년 자신만의 꿈과 끼를 펼치고 미래의 삶을 꿈꿀 수 있는 배움터로 자리매김하도록 마련했다.

센터는 영등포구 양평로20길 8-1에 위치하고 면적 450.6㎡, 연면적 506.17㎡ 규모로 지하1층~지상3층 건물이다.

지하 1층은 창고로 쓰여지고, 지상 1층에는 공유부엌, 공유카페와 커뮤니티 공간인 창의홀, 예술교육공간인 작작랩이 들어서 있다. 2·3층은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2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한 세미나실과 영상편집이 가능한 미디어랩과 청소년만의 휴식·소통 공간인 마실이, 3층에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전용 아트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창의력과 감수성 함양을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인만큼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모두의 지구'를



영등포구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전경. (영등포구 제공)

함께 돌보는 스스로 배움터'라는 비전 아래, 자율과 협력, 공생의 세 가지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자율' 프로젝트는 청소년 주도의 문화예술 활동과 청소년 주체의 문화예술 분야 진로 탐색 및 실현 활동을 지원한다. ▲'협력' 프로젝트는 통해서는 청소년 네트워크 발굴 및 연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길잡이 모임,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공생' 프로젝트에서는 창작공방, 미디어실을 활용해 자발적 실연을 이끌어내는 청소년 커뮤니티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센터 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부터는 보다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과 지역 연계 네트워크의 구성,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용산구, 청소년 전용공간 '꿈·담' 운영

학습·휴식·토론·미디어 창작활동 가능 공간 고루 배치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 초 용산꿈나무종합타운(백범로329) 4·5층에 청소년 전용공간 '꿈·담'을 열었다.

서울시 청소년 아트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게 됐다.

구는 사업비 5000만원(전액시비)을 투입,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꿈·담'을 조성했다.

5층 일부(면적 68.92㎡)에는 콘서트 이용이 가능한 학습공간과 휴식공간(평상,

반백, 벵키)을 비롯 85인치 전자칠판을 비치해 소규모 발표회, 영화상영 등도 할 수 있도록 꾸렸다.

4층 일부(면적 23.19㎡)는 미디어 창작 공간이다. 일반 강의실에 방문버스와 대형 모니터, 조광, 전문 마이크, 프로레터 등의 장비를 갖춰 1인 미디어 촬영과 제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평화당은 청소년이라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재 18~24세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영종 씨사이드파크 송산, 차별화된 관광명소 만든다”

광역단체장 유일 ‘목민상’ 수상



박남훈(사진) 인천 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21 목민상 시상식’에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목민상을 수상했다.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영환경 지원 시스템 구축, 모바일 기반 지역사랑 상품권 인천 e음 발행·운영, 스마트(온라인) 전통시장 조성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모바일 기반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누적 거래액 8조원 돌파와 배달 e음, e음택시와 같은 소상공인 맞춤형 부가서비스 구축 등의 정책이 돋보였다.

박 시장은 “목민상 수상은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한 인천지역 16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일꾼 결과”라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간이 금년이 마지막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인천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경제청, 복합레저관광단지로서 주·야간 모두 즐길수 있는 공간 계획 미디어파사드·은하수 조명...모노레일·짚라인 등 다양한 즐길거리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 씨사이드파크 내 송산을 복합레저관광단지로서 주·야간에 모두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박남훈 시장은 최근 제3연륙교 착공식에서 “영종 씨사이드파크도 제3연륙교

와 발맞춰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며 “씨사이드파크 송산에 스텝 넘치는 짚라인 코스와 전환형 야간 미디어 테마파크를 조성, 체류형 관광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영종 씨사이드

파크 송산에는 각종 조형물, 미디어파사드, 은하수 조명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공간이 조성돼 주간에는 암벽 앞 조형물 연출로 작품성 있는 분위기를, 야간에는 미디어파사드 쇼를 통해 화려한 공연을 각각 선보이게 된다. 또 아랑포도 등 다양한 블루리프와 포도주도 설치해 만타지 세계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다를 조망하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짚라인 코스도 만들어진다.

송산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 계곡을 횡단하는 짚라인을 체험할 수 있다. 이어 연승코스부터 고산도 코스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짚라인 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탁 트인 바다 전망과 노을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대와 해변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모래사장 등 바다 천수공간까지 조성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는 그동안 주거공간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을 통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레저 체험시설은 레일바이크가 유일, 즐길거리가 많지 않았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씨사이드파크 송산에 조성되는 짚라인 등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영종국제도시가 복합레저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미추홀구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추홀구 제공>

기초생활보장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인천 계양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계양구는 지난 1월부터 설계기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와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과 문자 발송,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했다.

또한, 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형우 구청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미추홀구 추진 정책·사업들 성과...정부시상 이어져

인천 미추홀구에서 추진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며, 정부로부터 상복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찾아오는 규제제로 신고센터 운영, 규제업종책임제 실시 등 인천시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다. 또 주차공유시스템도 장관상 2관왕을 차지했다. ‘낮 시간에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은 행안부 주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와 디지털 혁신 우수과제, 과학기술융합우수공공사업 지역문제 해결사업 2개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금년 보조금24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도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2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받았다.

김정식 구청장은 “전국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만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했다고 인정받은 것이 중요하다”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들을 연구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서구 ‘洞 단위’ 자원순환기반 구축한다

인천 서구는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쓰레기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찾는 주민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구 인건 최초로 ‘동(洞) 단위’ 자원순환기반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 말까지 구간의 특화된 중·장기 자원순환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주민주도 자원순환 협력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추진...감량·재활용 최우선

이후 용역 결과에 따라 ‘감량’과 ‘재활용’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소비단계 발생량 감량과 촉진, 발생단계 실질 재활용 확대, 처리시설 최소화·최적화 추진, 주민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4대 추진전략을 담은 ‘2025년 인천시 서구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 기본계획(안)’을 지난 10월 수립했다.

구 관계자는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전략별 주요 사업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자원순환 정책 전반

에 걸쳐 단계별로 주민이 참여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구가 직면한 쓰레기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주도적 역할수행을 구성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구도심과 신도시의 삶의 질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전문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 모든 과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자원순환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인천 부평구는 최근 구청 상층실에서 청년과 기업, 구가 참여하는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장기 근속자를 격려하는 간담회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선발된 기업대표와 청년 5명이 참석했다.

구는 협약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과 청년은 부평구의 관리·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구청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구로부터 2년간 인건비의 80%(월 최대 160만 원)를 지원받고, 구청 청년은 계속 정규직 유지 시 1년간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는 우수인력을 제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활동가 모집

인천 연수구가 지역 내 불시적이고 상습적인 유동광고물 효용적 정비를 위해 매년 추진 중인 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위한 활동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수거보상제 사업은 지역별로 수거활동가를 모집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한 경우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는 내년 7월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20세 이상 연수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내년 1월부터 1년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인천/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스마트 오토밸리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량인 인천항 일대에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가칭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컨소시엄에는 지에이건설·주성씨엔에이·올로케이션·아이아이씨엔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총 3516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오토밸리를 조성하고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35년까지 연간 100만대 규모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IPA는 앞으로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해 사업추진 계약을 할 계획이다. IPA는 관련 인허가와 안내자 계약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인천/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신천지 ‘전국 비밀 비유·실상 증거 세미나’ 시작...전세계 24개 언어로 증계

신천지예수교 증계장박성진이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새해 1월 2일부터 ‘전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시작한다. 세미나는 전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감추었다가(마13:34-35) 때가 되면 밝히 알려주실다(요16:25)는 신약 성경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성취된 때 전국 비밀 비유의 참 뜻을 성경에 의거, 그 답을 명쾌하게 열어 전 세계에 전하는 자리다.

신천지예수교회는 1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주 2회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모두 24회에 걸쳐 강연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 강사가 나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신천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4개 언어로 증계된다. 오는 3월 첫 강연은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세미나 주요 주제는 두 가지 신, 성경 상식,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비유한 양식과 누룩,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 비유한 불, 향로, 가마, 비유한 빛과 등대와 소경, 귀머거리, 예복, 비유한 보물, 부자, 비유한 들, 우상 등 총 24가지다.

비유로 기록된 전국의 비밀과 그 참뜻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운영하는 성경교육센터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의 초등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특히 요한계시록 세미나 이후, 말씀 교육 요청이 전 세계에서 폭증하며 이어지고 있다.

고, 성경 교육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목회자가 순식간에 12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도 많은 목회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성경은 전국 비밀을 비유한 방식으로 감추어 놓았기에 영적 인도를 위해 비유를 풀어헤쳐주는 큰 오류가 발생한다”며 “비유를 풀어헤쳐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시78:2)는 구약의 예언이 초림 예수님 때 이루어졌고, 때가 되면 비유·비사가 아닌 그 참 뜻과 실상을 밝히 알려주신다는 예수님의 예언(요16:25)이 오늘날 이뤄졌음을 세미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신년인터뷰 - 도성훈 인천교육감 <上>

“교육불평등 완화·전국 최고 수준 무상교육 심화”

도성훈(사진) 인천교육감은 29일 “내년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는 전환의 시기”라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교육 결손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도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4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소감은.

취임 당일부터 시작된 태풍, 높은 수돗물 사태, 코로나19까지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배움은 이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 지난 임기는 인천 혁신미래교육의 주춧돌을 놓는 시간으로, 특히 교육 불평등 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교육을 달성한데 이어,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섬 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 불평등한 교육 여건을 세심하게 살폈다.

미래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배움학교도 확대했다. 그동안 함께 애써준

교직원들과 성원해준 학부모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역점을 둔 동아시아 시민교육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등의 정책 성과를 자랑한다면.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었다고 자랑한다. 내년에도 인천의 아이들이 연대와 협력의 공간인 동아시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어진 지 40년 넘은 노후 건물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사전기획 단계부터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학교를 정했고, 맞춤형 연수나 사업 안내 자료를 통해 사업은 물론, 원도심 재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신년인터뷰 -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下>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 열어 의회 독립성 보장해야”

신은호(사진)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며 “3차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방역·의료 대응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목표로 발생지 처리율에 따른 자체 매립지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권역별로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내도록 하겠다. 최근 시작된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은.

올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인신권 독립과 주민참여권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예산 편성 등 권한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전달했다. 별도로 ‘지방의회법’을 제정,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



지다. 현재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다.

●남은 의정 기간의 목표는.

오는 2025년 탄소중립 본격화와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로 인한 소각장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도 추진하겠다.

●연말과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시의회 모두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낮은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시행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다시 한 번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3차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한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흥진군지부 김현기 회장 연임

내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CCMM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 초월대상 시상식에서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흥진군지부에 김현기 회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 분야에서 2020년 인천광역시 시민상을 수여 받아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당시 2020년과 2021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최우수지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김 회장의 2021년 추진실적으로 우리마을상인회 활성화와 비우치지원사업,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사업, 개인사업자 은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유치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14년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을 대변한다.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정책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흥진군지부는 10월 기준 회원 수 영흥면 312명, 백령면 65명, 북도면 32명, 연평면 28명, 대청면 19명, 지월면 18명, 덕적면 5명으로 총 7개면 47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김현기 소상공인연합회 흥진군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흥진군 소상공인 모든분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대로 지하도로’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인천시는 ‘공단고교~서인천 나들목 혼잡도로 개선사업’ (인천대로 지하도로)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단고교~서인천 나들목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시민 중심적이고 친환경 재생인 인천대로의 핵심사업으로 지하도로 4.51km 왕복 4차로에 총사업비 569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이 451km 왕복 4차로 5694억 투입 1단계 내년 1월 순차적 착공 예정 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하고,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50%에 대한 국비 확보에 한발자국 다가서게 됐다.

특히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을 통해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와 중봉대로 등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돼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물론, 원도심 재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용현동 기

시는 앞으로 있을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그동안 준비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설명하고, 다각도로 노력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남훈 시장은 “인천대로 공단고교~서인천 나들목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주변 지역재생과 활성화 사업에도 더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원도심 연결과 재생의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200만원 지급

강원 춘천시는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2022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으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명칭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원금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을 뒤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준다.

첫만남이용권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유통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출생신고 후 내년 1월 3일부터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춘천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재능장학생 226명에 장학금 3억 지급

경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재능장학생 226명을 선발, 지난 27일까지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재학생 및 사외 거주하는 2세 미만의 시민 중 인문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9개 분야에서 재능장학생을 선발했다.

올해 새롭게 선발된 재능장학생은 기존의 대회 수상 성적 평가 방식과는 다른 심사기준으로 작품평가, 실기 오디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분야별 교수 및 최고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최대호 이사장은 "새로운 방식의 재능장학생 선발은 학생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찾고 꿈을 키워가는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해 희망을 같이 키우겠다는 뜻으로 꿈나무들이 재능인재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대상'

경기 부천시가 '2021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결과 단일도시 부문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가 201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시는 매년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받았으며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021년 '대상'을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교통 수요 관리 강화, 대중교통 정책 확대, 자전거 중심의 정책 수립 노력, 교통안전 환경 조성 노력 등 전 평가지표에서 플러스 높은 평가 점수를 획득하면서 그동안 사명을 위한, 환경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 노력에 대해 인정받았다.

인경선 교통정책과장은 "현재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오세경기자 osk@jeonmae.co.kr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

경기 군포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KSBGM-194호)'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핵심업무 및 리스크 관리자 지정,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재난 발생 예방 및 기존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CEO의 기능연속성 선포식을 실시했으며 미래기획 부장을 TTF 총괄팀장으로 TTF팀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재해경감우수기업 관련 교육과 훈련을 추진해왔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이번 심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적합한 여부를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이달 최종 확정됐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내년부터 분보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강원 속초시가 내년 1월부터 시 전역의 분보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현실화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성격으로 2015년 이후 동결됐지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분보 발생량 감소 및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 청소업체 경영난 악화 우려로 인한 불가피함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분보수집운반 수수료는 내년 1월부터 수거식 화장실은 기존 15.8원에서 27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기존 21.3원에서 27원으로 동일하게 인상된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 확대 총력

강원 동해시가 더불어 행복한 동해 실현을 위해 내년에는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 확대에 더욱 총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 올해보다 8억원이 증액된 137억원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 재활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동행상당, 사례관리 등을 강화한다.

동해/ 이교형기자 leekh@jeonmae.co.kr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소득 9억5천만원 육박

기동 2년간... 사과즙·포도즙·민들레·오미자 가공제품 등 생산 사과즙 올해 10t 생산 4억8700만원 소득 발생 성장세 두드러져

강원 양구군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활발하게 가동되면서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농가들이 올린 소득규모가 약 9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밝혔다.

센터는 설립 첫 해인 지난 2019년 10월말부터 사과와 포도, 아로니아를 가공해 사과즙과 포도즙, 아로니아·사과즙을 생산했다. 사과즙은 2t을 생산해 9000만 원의 소

득을 올렸고 포도즙은 600kg을 생산해 약 3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아로니아·사과즙은 약 2t을 생산해 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사과즙을 60t을 생산해 2억 62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포도즙은 670kg을 생산해 약 3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민들레 가공품은 3.6t을 생산해 약 23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오미자 가공품은 6

1t을 생산해 8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데 이어 올해는 사과즙을 10t을 생산해 4억 87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포도즙은 600kg을 생산해 약 3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또 민들레 가공품은 3.3t을 생산해 3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오미자 가공품은 3.3t을 생산해 약 23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처럼 매년 센터에서 가공품을 생산한 제품 중에서 사과즙의 성장이 가장 눈에 띈다. 사과를 양구를 대표하는 소득 작목 가운데 하나로 이제는 강원도를 넘어 전국 최고의 사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이달 초 열린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별대회 사과 일반부문에서 양구군의 김철호씨(65)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임성재(38)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인 우수상을 각각 수상해 상위등급 상을 휩쓸었다.

올해 양구에서는 약 200농가가 지난해보다 500t 증가한 4000t의 사과를 생산해 지난해보다 10%의 양이 증가한 115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센터는 HACCP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처리실과 건조실, 분쇄실, 내포장실 등을 설치하고 고압살균기와 농축기, 추출기, 초미립기류분분리기 등 168종의 장비를 갖춰 줌, 잼, 분말, 말랭이, 빵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알비했다.

잼류와 음료류(과채주스), 음료류(액상차), 분말유, 제빵류 등 5종에 대해 HACCP 인증을 획득한 센터는 하루에 원물은 2t, 주스는 1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현재 7개 업체와 OEM 계약을 맺고 있다. 양구/ 오경민기자 ojm@jeonmae.co.kr



강원 정선군새마을회는 29일 군새마을화관에서 '2021년 정선군새마을운동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정선군새마을회 제공>

정선군새마을회, 2021년 결산 종합평가대회 열었다

유공자 표창 수여·노고 격려

강원 정선군새마을회는 29일 군새마을화관에서 '2021년 정선군새마을운동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승준 군수와 9개 읍·면 새마을가주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1년간 새마을운동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일선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새마을 발전 유공으로 조

봉태 강원도새마을회 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정재교 새마을지도자남면협의회장이 장관 표창을, 김이양 사북읍새마을부녀회장이 도지사 표창을, 새마을지도자남면협의회 김중진 새마을지도자 북평면새마을부녀회 안복동 새마을지도자 정선군수 표창을, 정선읍새마을부녀회 윤문숙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지도자북평면협의회 배기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협의회 의장 표창을, 유순옥 북평면새마을부녀회장과 박봉의 새마을문고정선군지부 회장이 중앙회장 표창을 수

상하는 등 총 28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다.

또한 단체별 평가에서는 새마을지도자간담협의회와 사북읍새마을부녀회가 최우수상을 새마을지도자사북읍협의회와 북평면새마을부녀회가 우수상을 새마을지도자임계면협의회와 정선읍새마을부녀회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승준 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지도자, 부녀회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나눔, 봉사, 배려의 새마을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군포시, 산불방지 도내 최우수 기관 '우뚝'

조기대응체계 구축·홍보활동 인정 수리산 2곳에 10t 기량 저수조 설치

경기 군포시가 2021년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해 온 점을 인정받아 도내 31개 시군 중 산불방지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지휘부와 진화차, 개인화재예방단, 기계화진화시중팀, 산불감시시설 등 각종 장비·시설을 갖추는 등 산불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을 강화했다.

또 수도권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난 등산객들에게 산불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산불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산불조

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긴급상황 대비 차원에서 과천, 안양, 의왕 등 3개 인근 시와 함께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산불화재예방 공동 임차 사용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헬기 30대 내 현장 도착을 골자로 하는 '골드타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수도녹지사업소 내 공터를 20년 이상 헬기 이착륙장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산불화재예방이 계절에 관계없이 진화용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담수용 저수조를 확보하기 위해 산불 취약지구 주변의 저수지에 결빙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물을 공급받기 어려운 관내 수리산 7부 능선 두 지점에 계곡물을 이용

한 10t 기량의 저수조를 설치해 긴급상황 시 산불진화 용수를 확보했다.

총 면적대비 산림의 비율이 46%인 시는 산불 위험에 비교적 많이 노출됐음에도 이러한 산불예방 노력을 결과로 올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3년 연속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수리산은 뛰어난 접근성과 아름다운 수릿길 조성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와 시 및 투철한 신고정신과 산림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경기 광주시 '토마토 고추장' 외국인 입맛 사로 잡았다

해외 바이어들 관심...인터넷 판매 시작

경기 광주시의 대표 농작물인 토마토를 활용한 고추장과 간장이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청년농부 토마토이플리에 김인성 대표는 직접 재배한 친환경 토마토를 어머니와 함께 토마토 발효방법, 유통 과정상 문제 등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토마토고추장과 토마토맛간장 등을 브랜드화 시켰다.

토마토이플리에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해외 바이어 발굴로 지난 9월부터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으로 인터넷 판매가 시작됐다.

또한 최근 서울 코엑스 푸드위크 및 수원 메가쇼 2021에 참가해 국내 소비자와 더불어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어 LA 타임스에 기사가 실리며 해외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다.

김 대표는 "높아지는 한류 열풍을 타고 드라마나 음악 등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주는 짜고 매운맛이 강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토마토고추장은 나트륨 함량이 20% 정도 낮을 뿐만 아니라 토마토의 새콤달콤함이 매운맛을 잡아 외국인들의 입맛을 자극하

경기 광주시의 대표 농작물인 토마토를 활용한 고추장과 간장이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인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의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농산물을 활용한 3차 산업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파주시, 민선 7기 4년간 재원 총 1055억 확보

특별교부세 307억·특별조정교부금 749억...총출한 대응 전략

경기 파주시는 민선 7기 4년간 총 1055억이라는 괄목할 만한 재원 확보를 이뤄내 화제다.

시는 지난 4년간 특별교부세는 2018년 59억원, 2019년 114억원, 2020년 65억원, 2021년 69억원을 확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일시적으로 교부됐던 201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은 민선 7기 출범 첫해인 2018년 112억원, 2019년 155억원, 2020년 232억원, 2021년 250억원을 확보하며 지난 3년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매년 지역 현안 사업의 발पूर्부터 재원 확보까지 총출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 시와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과의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로 교부된 재원은 지역 현안 사업에 신속히 투입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도 소홀함 없이 추진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 27일 겨울철 제설장비 정비 3억원, 문발·문산 배수펌프장 노후설비 정비 사업에 각각 1억 6,000만원 등 6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 사업, 6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22일 67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로 총 28개 사업, 2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역대 최고 확보를 기록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등 각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총 18억 9000만원을 확보해 최종한 시장을 비롯한 시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시정운영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파주/ 임철영기자 imi@jeonmae.co.kr



경기 동두천시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내 실감콘텐츠 체험존을 설치했다.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실감형 전시' 즐긴다

실감콘텐츠 체험존 설치

경기 동두천시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내 실감콘텐츠 체험존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 존 조성사업' 부문에 선정, 국비 3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실감콘텐츠 체험존 설치에는 정적인 유물 전시와 단순 설명의 한계를 벗어나 관람객에게 보다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전문가

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쳤다. 체험존과 체험실은 관람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1층에 마련된 '탱크·헬기 실감콘텐츠 체험존'에서는 실제 장비에 탑승한 것과 흡사한 스틱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존 전시에는 새롭게 AI 인공지능이 적용된 다양한 AR(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 2층 전시실에는 6·25 전쟁과 관련된 '미디아트월'이 설치, 당시 색감과 생동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 했다.

동두천/ 진양형기자 jyh@jeonmae.co.kr

안양시 전역 동식물 2229종 서식 확인

도시생태환경지도 제작 내년 1월 공개

경기 안양의 동식물 생태를 총망라한 도시생태환경지도가 나왔다. 시는 지역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정밀공간생태정보를 담은 '안양시 도시생태환경지도'를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도시생태환경지도는 2년간 58.46km에 걸친 안양 전역의 식생현황도, 동식물상주제도, 비오톱 지도 등을 시의 GIS(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지도화 했다. 비오톱은 특정한 산발예방 참여지역 및 투철한 신고정신과 산림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류 37과46종, 양서류 6과40종, 파충류 7과 10종, 곤충 10과467종, 어류 7과22종, 저서무척추동물 33과52종으로 각각 조사했다. 여기에는 멸종위기생물인 킬목물떼새, 새해오라기, 맹꽁이, 남양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물상으로는 16과413분류군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동식물 230종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은 확보, 각 학교와 시민 대상 교육 및 전시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교란종 제거,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제도 동식물 사진을 내년 1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원주국토청, 올해 건설현장 430개 점검 169건 행정처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월부터 건설현장의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도내 430개 건설현장(전년 대비 8.8% 증가)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이행 관리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 가운데 50억 원 미만의 민간소규모 건설현장으로 대상을 확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규정 위반 등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품질,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169건의 행정 처분 및 1,251건의 현장지시 등 건

설현장 개선에 노력했다. 이번 점검 결과 유형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안전 90건, 품질 208건, 시공 137건, 기타 174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중 부실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30건), 현지지시(119건), 원 (1건), 발주자 과태료(102건) 부과 등 엄정 처분함으로써 건설 품질·안전에 대한 현장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 등을 통해 품질 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원주/ 안중률기자 iyahn@jeonmae.co.kr

전남도 규제혁신 평가 우수 선정

전남 평양시가 '2021 전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연초부터 현장 중심 지방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복덕 시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시민·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쓰는 결과"라며 "내년에는 전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하니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서 우수 사례 선정·최우수상 수상
권분우·김치 등 권분 정진 현대식 계승 호평

전남 순천시 전남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순천형 권분운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공동주관, 개최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는 전국 기초지자체로부터 288건의 정책이 접수, 1차 외부 심사, 2차 PT발표 심사, 3차 국민 심사를 통해 20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 이 중 '순천형 권분운동'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형 권분운동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사에 등장하는 '권분(勳分)' 정신을 현대식으로 계승해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3월 시에서 '권분구미'로 시작해 김장김치 나눔 권분운동인 시종7 '다같이 김치'까지 상황리에 추진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파하고 있다.

허석 시장은 "순천형 권분운동이 순천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선도 모델로 퍼져 하나된 연대의 힘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행동 백신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형 권분운동은 지난 6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표창을 받는데 이어 이번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상까지 수상을 거머쥐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전남 순천시는 전남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순천형 권분운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순천시 제공>

특별교부세 10억9000만원 추가 확보

전남 구례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9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분할 소하천 정비사업 7억 원, 지리산 스마트 콘텐츠 개발사업 3억 원, 2021년도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9000만 원이다.

군에 따르면 분할 소하천 정비사업은 32억 원을 투입, 구례를 논곡리 일원의 분할천의 하상과 제방 호안을 정비하고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군은 군비로 부담할 사업 일부를 특교세로 확보해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지리산 스마트 콘텐츠 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6개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 온라인 소통 플랫폼, 로컬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리산권개발개발조합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관광 지구구 등 관련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 양관식기자 yang-ka@jeonmae.co.kr

의령군 올해 특별교부세 41억...역대 최대

의령군 올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기존 구간(L=1.8Km)에 1.1Km를 추가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해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래된 군수는 "올해 특별교부세 41억 원 확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군민의 안전과 삶의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확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민 수혜성이 높은 교통요충지나 겨울철 급경사지 상습 결빙으로 통행편의를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의령/ 최관규기자 chpaj@jeonmae.co.kr

'목포수협' 2년 연속 전국 위관고 1위

27일 기준 1980억원 달성
"연말까지 2천억 이상 예상"

목포수협이 전국수협(지구별)에서 위관고 1위를 달성했다.

29일 목포수협에 따르면 27일 현재 1980억 원의 위관고를 올렸다.

이는 코로나19로 수협 위관장이 폐쇄될 수 있는 최악의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위관장의 철저한 방역대책 및 관리로 위관장이 폐쇄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지어선(대형선박·트롤러선 등) 유치와 위관서비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김청룡 조합장 취임 이후 각종 위관제도 개선 및 투명한 경영제도 확립, 생산실명제, 어상자 규격화, 어류 선별기 도입 등으로 소비자들과 상인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신뢰가 덧붙여 2년 연속 전국 1위 위관고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목포수협은 "연말까지 기상상태와 조업 여건에 따라 위관고는 2년 연관료 위관장이 폐쇄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지어선(대형선박·트롤러선 등) 유치와 위관서비스 개

목포/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김일 선수 동상 제막식 개최

전남 고흥군 김일기념사업회는 최근 금산면 소재 김일 기념체육관에서 김일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故 김일 선수는 고흥 금산 출신으로 1960~1970년대 박치기 한 방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국내외 프로레슬링계를 주름 잡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이다.

군은故 김일 선수를 추모하고 위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잊혀져 가는 프로레슬링의 부활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정하고 사업비 4억4000만 원을 투입, 청동 재질의 높이 5m의 규모로 건립했다.

김순길 김일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은 "김일기념사업회 회원들의 열망과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침내 오랜 숙원이었던 김일 동상을 건립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기근 군수는 "김일 선수가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오래 기억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후 홍보센터 건립도 잘 추진돼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막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준 준수와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김일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나주시,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상생협력 '우수'

한국농어촌공사 자체평가에서 전남지역 본부 상생협력체계 부문 우수사례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됐다.

29일 김신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는 강인규 시장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정채, 소외계층 농촌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복지·문화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하고 배후 마을로의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총사업비 300억 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융합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와의 협약을 통해 농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20년 동안의 '농촌 공간 전략 계획'과 '우선 생활권 5개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양 기관은 내년부터 2041년까지 '영산강변', '원도심', '혁신도시' 3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농촌공간전략계획을 도출했다.

3개 생활권별 중심성, 시급성, 접근성, 실현성에 기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산강변 생활권인 세지·왕곡·만남·공산·동강면을 우선생활권으로 설정했다.

강인규 시장은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 복지 기반 마련에 힘써주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에 감사패를 드린다"며 "지사의의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통해 생활SOC시설 보급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힘써주겠다"고 말했다.

나주/ 변대훈기자 beam@jeonmae.co.kr

한국농어촌공사 선정·감사패 전달
농촌지역개발사업 중점 지속 추진



김신일(오른쪽) 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는 강인규(왼쪽) 시장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나주시 제공>

진주폴리텍대학 광고디자인학과, 공모전 휩쓸었다

경남 디자인·옥외광고전 다수 수상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광고디자인과 재학생들이 경남지역에서 개최된 3년의 디자인전과 대한민국 옥외광고전에서 수상했다.

29일 진주폴리텍대학에 따르면 광고디자인과는 제 12회 진주시 아름다운 간판디자인전에서 금상을 비롯해 2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현우 학생이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오상에 김은경, 홍상에 김동규·김서진 학생이 이름을 올리는 등 총 21명의 학생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제 21회 울산 옥외광고 대상전에서는 금상을 수상한 김서진 학생의 업을 포함 총 10점의 출품작이 대거 수상하며 대회를 휩쓸었다.

제 10회 경남옥외광고 대상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미지 학생을 포함한 총 12명의 학생이 입상하는데 성공했다.

제 35회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에서는 김경란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고 3명의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진주폴리텍대학 광고디자인과는 매년 각종 디자인 공모전에 출전해 학생들이 뛰어난 디자인 실력을 펼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의 대표 디자인학과로서 그 명성을 대외수상으로 입증하고 있다.

정지영 학과장은 "올해도 학생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 박종용기자 bjb@jeonmae.co.kr

가공배전선 지중화 확정지역 안내

저희 한전에서서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거북로(거북시장주변) 일부구간” 가공 배전선로를 지중 배전선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 지역이 지중화 지역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지중화 목적**
○ 거북로(거북시장) 주변 미관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 추진
- 지중화 확정지역**
○ 거북로 일부구간(거북시장 주변) (석남동 618번지 도로 0.32km)
- 지중화 공사 예정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10월(약 5개월)
- 지중화 확정지역의 전기공급 방법**
○ 기존 전기사용 고객 : 기존 가공 인입선을 지중 인입선으로 변경하여 공급하며, 이에 따른 고객부담금은 없습니다.
○ 아울러 전기수급지점(재산한계점)은 기존 가공인입선에서 지중 인입선(고객 인입구 배선과 한전 지중인입선과의 연결점)으로 변경됩니다.
○ 신증설 전기사용 신청 고객 : 지중 인입선을 시설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증설 전기사용 신청에 따른 고객부담금은 **공고후 30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중표준공사비가 적용됩니다.
- 건물 신증축 및 개축시 유의사항**
○ 지중화 확정지역 내에서 건물을 신증축(개축, 재축 포함)할 때는 지중 공급에 대비하여 미리 지상기기 설치공간 확보 및 전기인입 구조물을 설치하셔야 하며, 설치 위치는 저희 한전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중 통행이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중화 구간

문 의

공 사 관 련 : 서인천지사 전력공급부 ☎ 032-560-1232

신규접수관련 : 서인천지사 고객지원부 ☎ 032-560-1218



“정선 일상회복·사업발굴 집중”

군, 내년 주요업무보고회 개최 살기좋은 농촌 농촌 만들기 등 160개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

강원 정선군이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총 160개 사업의 청사진을 내놨다.

군은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임인년 행복한 정선을 디자인하기 위한 새해 군정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발전과 주민행복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놨다.

군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하루 빨리 회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정세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정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2022년도 군정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조기에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부서별 업무보고 형식을 탈피, 부서별 핵심사업에 대해 전 부서장들이 토론을 진행하며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군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갖는 전략적 보고회가 됐다.

여기에 군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위한 소통공간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군의 미래 설계를 위한 사업들이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로 치우침이 없도록 균형 있는 군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살기좋은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시책, 앞서가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시책, 웰리스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강화사업 등 160개 사업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 군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순준 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7기의 혁신적 정책이 소중하고 결실을 맺고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은 코로나19 이전의 행복했던 일상을 회복하고 위기를 넘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고 현장을 찾아다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i@jeonmae.co.kr

아산시, 자체도시개발사업 T/F팀 신설

모종셋트지구·풍기역지구 전담
팀장 1인·실무자 1인 구성·운영

충남 아산시가 내년 1월 3일자로 자체 도시개발사업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모종·풍기 도시개발사업 T/F팀은 현재 진행 중인 아산모종셋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아산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한다.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환경계획인가, 보

상 및 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팀장 1인, 실무자 1인으로 구성 운영되나 사업 진행에 맞춰 관련 부서와 인력 증원에 대해 협의한다.

아산모종셋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모종 113-10번지 일원에 58만453㎡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5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8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준비 중이며 내년 실시계획 및 환경계획 인가 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횡성군,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 잘했다

우수 지자체 선정 3억원 확보

강원 횡성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 실적 평가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보수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1%의 이자로 대출을 지난 2010년부터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관내 금융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했다.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86개 업체에 1%대 금리로 89억 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9월 1차 공모사업 선정으로 3000만 원을 지

원받아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2021 지역 소상공인 희망 대출 공모’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더욱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횡성/ 안중률기자 iyah@jeonmae.co.kr

고양상공회의소, 장년고용촉진 ‘노동부 장관상’

경기 고양상공회의소는 2021년 일자리 창출유공 정부포상 중 장년고용촉진 부문, 취업지원기관(단체) 분야 ‘노동부 장관표창’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상공회의소는 지난 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해 시 및 인근 지역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물론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직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등 청년층부터 시니어계층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던 기업에서는 채용 인원에 따라 몇 천 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기도 한다.

고양/ 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국립공원 새해 입산 시간 변경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 내 국립공원의 새해 1~2월 입산시간이 변경된다.

29일 설악산과 오대산, 차악산, 태백산 등 강원도 내 4개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내달 1일과 2일 이틀간 입산허용 시간을 오전 9시 4시 또는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했다. 태백산과 오대산, 차악산은 이 기간 공원주차장도 오전 7시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2개 국립공원에서 해남·해맞이 행사를 여는 것을 전면 금지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조처에 따른 것이다.

속초/ 윤택환기자 youth@jeonmae.co.kr

수리섬 외부체험시설 준공

경기 군포시가 수도권자연휴양림 분관 동 앞에서 풍당풍당 수리섬 외부체험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때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풍당풍당 수리섬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서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유아시설로 재탄생한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당풍당 수리섬 외부체험시설은 크게 학습마당과 체험동선으로 나뉜다. 운영근 시 수도과장은 “풍당풍당 수리섬 외부체험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충남 보령시는 지난 29일 대천해수욕장 상인회 회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보령시 제공>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상인회 친절서비스 교육

시장 경쟁력 확보

충남 보령시가 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응대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29일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대천해수욕장 상인회 회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보령 해저터널 개통에 따라 이달 대천해수욕장 관광객이 주말 기준 하루평균 4만6000명으로 지난해 2만6000명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시장 경

쟁력을 확보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고양관광산업공작소 박진희 강사의 고객 응대 매뉴얼 강의와 고객 감동 3S 실천 운동 및 3가지 친절환 마을가짐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김동일 시장은 “상인분들이 시의 일꾼이자 관광의 사자인 만큼 관광객을 미소와 친절로 맞이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보령 조성에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보령/ 이진영기자 leegj@jeonmae.co.kr

화천군, 내년 신규사업 1952억 확보

강원 화천군은 내년부터 연차별로 시작되는 주요 22개 현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총 1952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사업 대부분이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조성 등이며서 접경지역 화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22개 사업의 국·도·군비와 기금 등 확정된 총 사업비 규모는 1952억4500만 원이다. 이중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 기금 등 외부 확보된 예산 규모는 총 1416억78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접경지역 생활기반(LPG) 조성 등 총 사업비 712억 원 규모의 핵심 숙원사업이 내년 첫 실행을 뜨게 됐다.

정주여건 개선·기반시설 조성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 기대

이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화천읍 중리 일대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관 명품화 사업은 27사단이 해체되는 사내면 사정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족분노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장미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산양·사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199억 원 규모의 사업도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최전방 지역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출입 간소화, DMZ 평화의

길 인프라 조성사업도 내년 새 전기를 맞게 됐다. 민통선 출입이 간소화되면 백안산 케이블카 등 안보관광 콘텐츠 활성화 효과까지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반기에 실내체육공간 조성, 신재생 융복합 에너지 지원, 화천형 온종일 스마트 초등돌봄 프로젝트, 다들께 돌봄사업 학교 돌봄터 사업, 가례리 사람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등의 사업비도 올해 확정됐다.

최문순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극복, 주민 삶의 질 향상, 아이 기르기가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살펴가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천/ 오경민기자 ocm@jeonmae.co.kr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재학생 주도적 학습의지 보였다”

미래학교 학생 기대수준 파악 설문조사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삶, 학교생활 만족도, 다양한 미래 학교 모습, 경기미래학교에 대한 인식,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 미래형 교수 학습에 대한 인식 등 6개 영역 총 2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해 실시했다.

영역별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현재의 삶에 대한 학생 행복도는 72.9%,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형성과 신뢰도 인식 수준은 각각 73.7%, 52.3%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기대하는 미래학교의 모습으로는 ‘교과서를 벗어나 학생의 흥미·진로 중심으로 교육하는 학교(65.5%)’,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기획·실행이 가능한 학교(65.3%)’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진학 가능 학생을 전제로 경기미래학교 진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2%로 나타났으며 진학 희망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진로 연계 희망 과목 선택(28.5%), 경쟁 없는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28.2%),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해 미래역량 신장(25.1%)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 성장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응답한 전체 학생과 혁신학교 재학생으로 나눠 비교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학생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7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경우는 전체 학생 22.2%, 혁신학교 학생 34.7%로 혁신학교 재학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학생은 ‘흥미없는 학교 공부(23%)’를 학교생활 불만족 이유 1순위로 응답했다.

김병진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학생 성장을 돕는 미래학교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등 학생이 배움의 주제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 정책 수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교육청이 여론조사업체 주식회사 케이티앤에 의해 지난날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현재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6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성경 속 천국 비밀의 참뜻이 열린다”
신천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초등 과정 유튜브 대공개

HOLY BIBLE

SHINCHEONJI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천국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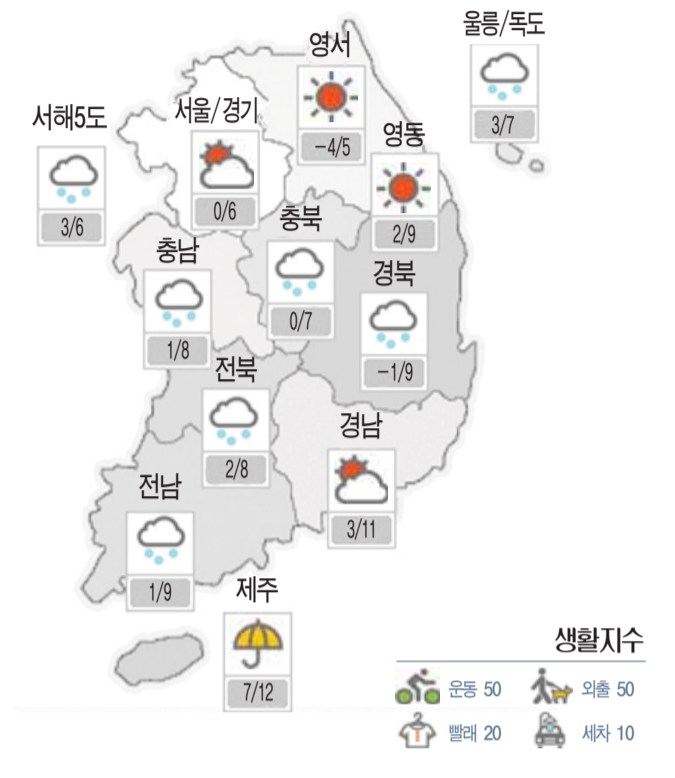
비유와 실상 증거

2022.1.3. ~ 3.28. 매주 월, 목요일 오전 10시

▶ YouTube 신천지 공식 유튜브 전 세계 동시송출
https://www.youtube.com/user/ShincheonjiChurch

오늘의 날씨 아침 영하권 추위... 곳곳에 눈 소식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흐려지겠다. 울릉도·독도는 5~20cm의 눈이나 5~20mm의 비가 내리겠다. 충남·전북·전남권 북부에도 3~10cm의 눈이나 5~10mm의 비가 오겠다. 충북·전남 남부·경북권 내륙·경남 서부 내륙은 1~5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오겠다. 경기 남서부·제주도·서해5도에도 1cm 안팎의 눈이나 1mm 안팎의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보됐다.



세종시 '세종엔' 통해 선별진료소 혼잡 정보 제공

세종시가 29일부터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별진료소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선별진료소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시는 시민 편의와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기인원, 대기시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현장에 설치된 지능형 CCTV의 AI가 대기자 수와 대기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가적인 관리인력 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세종엔을 활용해 선별진료소 이용자가 북미는 시간대를 피해 빠른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검사 대기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 유품 보물로 추가 지정

충남 예산군은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소장중인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568-3호로 추가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은 1931~1932년에 윤의사가 동생 윤남의에게 보낸 편지로 봉투의 주소를 통해 상하이 의거를 결심했을 당시의 거주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 뜻깊은 유품이다.

삼척시, 내년 농정시책사업 신청자 접수

강원 삼척시가 '2022년도 농정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를 내년 1월 21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상 사업은 농정기획, 농촌개발, 원예특작 등 4개 분야 61개 사업, 지원기획, 교육, 유통기공 등 4개 분야 44개 사업, 귀농귀촌, 신소득, 농기계 등 4개 분야 22개 사업, 축산경영, 가축병역 등 4개 분야 74개 사업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총 176개 분야 201개 사업이다.

철원군, 軍 유류부지 활용 빙상장 조성 2월까지 운영

강원 철원군은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송읍 오지리 일원 군 유류부지에 빙상장을 조성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야외 빙상장은 스피드 스케이팅 경구 400m 트랙 규모로 조성했으며 대기실, 화장실 등 주민 편의·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스피드스케이팅 전용으로 만든 눈썰매와 피겨스케이팅은 이용이 제한된다. 청소년 이용에 적합한 230mm~280mm 사이즈의 스피드스케이팅화 80짝이 마련돼 있지만 원활하게 동계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개인장비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보령시,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만전 기한다

도로제설반 운영·취약지점 점검 관리 도로결빙 적극 대처로 피해 최소화 교통무질 예상 중점관리지역 지정

충남 보령시는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사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간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년부터 분청 및 읍면 도로, 도로보수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도로제설반을 운영하고 복구 지원 차량 70대를 활용해 안전한 도로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도로의 여건과 차량통행 등을 고려해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에 15t 제설용 대형 덤프트럭을 활용해 제설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급경사 및 응달·커브 지역 등 폭설, 결빙으로 인한 교통장애 예상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방도 도로제설을 담당하는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올 겨울부터는 성주 모란공원, 웅천산립단지(지방도 600호) 등 제설 취약 구간을 대상으로 시 아적장에서 즉시 제설 자재를 상하차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까지 읍면 동 및 원산도출장소에 보유 중인 살포기, 제설기 등 72대의 제설 장비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타설 입구, 고갯길, 교통무질 예상구간 등 제설 취약 구간을 재조사해 현황도를 작성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제설 취약구간 등에 자재와 장비를 사전 배치했다.

또한 지난 27일 강설에 따라 도로제설반을 투입해 상습 결빙 구간 및 이면도로 등을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국도 36호 신축동 아랑고개와 국도 40호 삼주터널 등 7개소의 고개 지역, 시도 5호 주산 보령담 및

시도 2호 주포~청리와 연결된 길고개 등 5개소의 응달지역, 동대고 등 6개 대형 교량, 주산~미산 간제 및 보령~장산 길고개 등 47개의 교통무질 예상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한편 김동일 시장은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설 시 방파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내 집, 내 집포요는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시 다정고 송민준 학생이 '제42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세종시 학생, 전국과학창의융합대회 '두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서 다정고 송민준 대통령상 등 수상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학실 모델학교 등 과학교육 활성화 앞장

세종교육원은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겨루는 다수의 전국과학창의융합대회에서 올해 세종시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하는 '제42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다정고 장정희 교사(송민준 학생 지도교사) 특상, 여을초 고현국 교사(임유진 학생 지도교사)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해 세종교육원은 과학적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지능형 과학탐구 키움터, 과학실 안전 모델학교 운영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역량 함양 및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양희 원장은 "천성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탐구 활동의 장을 적극 확보해 마다교사 특상, 여을초 고현국 교사(임유진 학생 지도교사)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해 세종교육원은 과학적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부천시, 소재마을기획단 국토부 설립 인가 승인

미늘해설·카페 등 운영

경기 부천시는 최근 소사본동 소사 도시재생 사업지에 소재마을기획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소재마을기획단)이 시 최초로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소재마을기획단은 소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민거점공간인 '소사1공간'을 이용해 마을역사관, 마을해설, 마을카페 등의 운영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민상인협의체 등의 지원과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조합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덕현 시장은 "시에 처음으로 설립된 소재마을기획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축하를 전하며 소사 도시재생사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며,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소사지역을 제외한 원미, 삼곡본동, 고강 등 3개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류 충돌 방지시설로 폐사체 95% 감소

도로 5곳 투명방음벽 설치

경기도가 도내 도로 투명방음벽 5곳에 조류 충돌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시범사업 이전 대비 폐사체가 9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시범사업 대상지 부근 조류 폐사체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집계·분석한 결과 조사 1회당 폐사체가 2019년부터 방지시설 설치 전(올해 6월 전후) 28마리에서 방지시설 설치 이후인 9~11월 0.1마리로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지원방사단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지원방사단과 기존 민간 환경 활동인이 투명방음벽 부근 조류 폐사체를 확인하고 온라인 기반 자진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사진 등과 함께 입력하면 국립생태원이 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범사업 이전 사전 모니터링도 같은 방식이었다.

국립생태원이 분석한 시범사업 사전·사후 모니터링 비교 결과를 보면 사전 153회 조사에서 충돌 건수 436건이 발생했고, 사후 32회 조사에서 충돌 건수는 49다. 주요 지점을 보면 도로 미사호수공원 주변 투명방음벽은 시범사업 이전 33회 조사에서 충돌 100건이었으나 방지시설 설치 후 8회 조사에서 단 4건의 충돌만이 확인됐으며 사업대상지 중 다른 지점의 경우에는 폐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파주 부르미버스' 운영·교하지구 어디든 빠르게 달린다

수요응답버스 운행 첫날 460명 기입 대중교통 환승할인 전국 최초 적용

경기 파주시는 수요응답버스(DRT)인 '파주 부르미버스'가 전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진행된 무료 시범운영을 통해 도로 이동시간 최적화 등을 개선했다. 또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 왔던 환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시민평가단과 공무원 설문 등을 통해 '파주 부르미버스'로 이름 붙였고 명명식도 개최했다.



경기 파주시는 수요응답버스(DRT)인 '파주 부르미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특히 향후 3개월 동안의 이용수요를 검토해 파주에 맞는 최적의 교통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운수사, 플랫폼업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가입자는 운영 첫날인 21일 460명을 기록했고 28일에는 1480명까지 늘어 1일 평균 약 247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2367명으로 1일 평균 약 36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분포를 살펴보면 운영3지구 34%, 운영1·2지구 58%, 교하지구 8%로 비교적 입주민구가 적은 운영3지구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범용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기존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되었던 상담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해 총 9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충북도민, 올해 월평균 소득 200만~300만원

시혼자살과...주택미련 부채집아

충북도민들의 지난 1년 동안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 원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도가 29일 발표한 도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률에 파악한 '2021 충청북도 사회조사(1만1604 표본가구)' 결과에서 분석했다. 사회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일거리의 경우 거주 시군 내 일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5%를 차지했고, 직업선택 요인으로는 1순위 수입(39%), 2순위 안정성(28.5%) 순이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응답이 20.5%로 가장 높고 부채가 있는 가구는 43.0%이며 부채사유는 주택미련자금이 45.5%로 다수를 차지했다.

결혼에 대해서는 '하는 편이 좋다' 41.5%,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30.4%이며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혼자인 삶에 만족(67.3%)'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남녀 구분 없이 2명'이 가장 많았고(29.3%),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좋음(11.1%)' 의견도 있었으며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나쁘다 나온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39.5%)', '양육비용 부담(35.0%)' 순으로 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도시·시·군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회조사에 협조해 준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주/ 양철기 기자 kyang6@jeonmae.co.kr**

여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1명 구속

경찰, 나머지 관련자 수사 중

경기 여주시 연양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자신 아들에 대한 방임 및 방조를 의심하는 영상을 확인한 학부모가 지난 5월 112로 신고와 폭행에 의한 학대 등의 혐의에 반발한 사건과 관련, 당시 아이의 담임교사 A씨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여주시원 영장 전담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담당하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 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신청한 A씨 영장과 관련해 구속 사유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생의 학부모는 자신 아이에 대한 당시 담임 선생과 복수의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이후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경찰 신고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상담센터'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지역 사회 등에 파장을 일으켰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자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구속됐다. **여주/ 김연기 기자 y1-kim@jeonmae.co.kr**

이천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성료

시민생활 전반 법률상담서비스

경기 이천시는 최근 제3회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성료하며 종료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이천시 소속 변호사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읍·면·동 주민을 위해 월 1회 각 읍·면·동으로 순차적으로 찾아가 민사·형사·가사·노동 등 시민생활 전반에 대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0월 장호원읍, 11월 중포동에 이어 이번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전화예약과 현장 방문신청을 병행해 추진했다. 한편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기존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되었던 상담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해 총 9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을 받은 시민은 "마장면에 거주하면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곳을 찾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마루밖을 의심하는 영상을 확인한 학부모가 지난 5월 112로 신고와 폭행에 의한 학대 등의 혐의에 반발한 사건과 관련, 당시 아이의 담임교사 A씨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여주시원 영장 전담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담당하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 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신청한 A씨 영장과 관련해 구속 사유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소송 잘못 다시해야”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군인 사망자 유가족 A씨 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은 ‘소극적 손해배상금’(공무 수행 중 다른 군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 9700여만원은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중복을 배야 하지만,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까지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사망보상금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당국이 사망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상금 안 준 국가 상대로 1·2심 승소 3심서 “부작위 소송 냈어야” 파기환송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씨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처장은 “A씨가 사망보 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국가배 상금을 받았으니 지급할 사망 보상금이 없다”는 내부 결재 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은 ‘소극적 손해배상금’(공무 수행 중 다른 군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 9700여만원은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중복을 배야 하지만,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까지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사망보상금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당국이 사망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두고 “A씨는 보훈처장장을 상대로 부작위(하지 않음)를 다투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했고 이미 거부 처분이 이뤄졌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해야 한다”며 “원심은 A씨가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정성조기자



박형민 침수대책위 대표와 주민들이 각각 매일 아침과 매주 월요일 아침 '농성·화정동 침수대책' 촉구 피켓시위에 나서고 있다.

“서민동네 침수시켜 재벌 살린 광주광역시장 즉각 아웃하라”

농성·화정동 피해 주민대책위 수개월째 침수대책 항의 집회

광주광역시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 수개월 동안 화정역 사거리에서 광주시에 침수대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서 시선을 끌고 있다.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 박형민 대표는 지난 10일부터 매일 아침 화정교차로에서 ‘서석고 일대 침수대책’ 요구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매주 월요일 아침 같은 장소에서 ‘농성·화정동 주민 집중 행동’ 시위를 벌이며 광주시장에게 침수대책 방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병행하고 있다.

이 시위는 매년 여름 장마철이면 농성·화정동 일대의 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따른 핵심 쟁점이었던 상무대로 횡단 시공이 가능하다는 서구청이 의뢰한 실시계획용역이 내용에 따라 사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심었으나 지난 10월 5일 광주시가 시·구청 하수 관계자 회의석상에서 군부2로의 하류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및 광주터미널의 침수를 우려,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가 대책 마련에 미적대자 주민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대책위 박형민 대표는 “광주시가 재벌기업을 보호하는 듯 서민 동네를 고의 침수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2일 시의회 정연주 의원(정의당)이 주관한 대책위와 시·구청 간 합동회의 석상에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결론을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29일 현재 아무런 답변도 없어 주민들 민원을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는 신세계 백화점 및 광주터미널의 침수가 우려돼 공사를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청 고위 직원의 녹취파일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리단에 의뢰했으나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대중·김성호기자

대선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자동차정비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로로 차량 도장작업을 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주방용 가구 등을 제작하는 B·C 업체는 제재기계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물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는 D업체는 먼지가 발생 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단속됐다.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부서나 자치구에 의뢰하고 업주는 입건할 예정이 다.

대선/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강추위속 추천 산불 7시간여 만에 진화

29일 오전 2시 42분께 강원 춘천시 사북면 가림리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7시간여 만에 꺼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전문 진화대원과 소방대원 등 11명과 진화차 20대를 투입해 오전 10시에 진화를 완료했다. 대원들은 영하 7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깊은 산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진화했다. 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회항해야 했다. 이 불로 국유림 1ha(1만㎡)가 탔고 불이 시작된 주택도 1채가 모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가정집서 술 마시다가 지인 살해 30대 체포

3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7)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에 벌여놓 한 가정집에서 피해자 B씨(50)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흥기를 두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 신홍대기자 shindy@jeonmae.co.kr

파주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연말 집중 단속

경기 파주시가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최근 전기자동차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도 늘었고 이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연말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공공기관, 공공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용충전주차장 설치구역으로 파주시청, 금촌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등 총 18곳이 해당한다.

특히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구역에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충전방해 행위자 1회 적발되면 경고조치가, 2회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어머니 반복 폭행하고 숨지게 한 ‘인편수심 아들’

먹을 것 안 주고 잤다고 범행 112 신고했다가 경찰에 체포

30대 아들이 잠자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에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인 24일 오후 2시 56분께 “알가미가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밥을 자화 가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에도 A씨는 단둥이 함께 사는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는 특수존속상해, 10월에는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4월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B씨는 평소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를 돌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맹정수기자 mchs@jeonmae.co.kr

경기지역 개 불법 사육·영업행위 판친다

도 특사경, 집중단속 21곳 적발 동물학대 혐의자 등 26명 입건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사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2월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21곳에서 26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

생산 2건, 무등록 동물 영업(판매·장묘·미용·위탁관리) 5건, 가족반려견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 등 총 29건이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남시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쇠파괴기로 90여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판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또 B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포시에서 반반도 재개로 치우지 않은 채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용탕 등 질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음산노폐기를 막아로 주다가 수시판에

걸렸다. C씨와 D씨는 포천시에서 허가받은 업체 의 명의를 빌려 반식시간 반대로 300여 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흥시에서 반려동물 장례업을 하는 E씨는 신고 없이 반려동물 시체를 화장했으며 대기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했다. 유래원 단장은 “개 사육 급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숙해서 수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성민기자 han-ym@jeonmae.co.kr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 누구에게 말겨야 할까

대통령들의 대통령, 링컨에게서 배우는 리더의 품격



다시 링컨

책값기 저음 | 15,800원

우 리 에 게 필 요 한 리 더

다 시 링 컨

정치, 젠더, 세대 갈등으로 분열된 지금
우리에게는 링컨 리더십이 필요하다!

Tel : 02-332-5281 | Fax : 02-332-5283
북스토리

E-mail : bookstory@naver.com

동정

강성근 전국산청향우연 회장, 이웃돕기·향토장학금 3000만원 통근 기부

“고향 이끌 젊은 인재들 산청 빛내주길”

유공 시민 표창 수여식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30일 오전 10시 및 오후 2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유공 시민 표창 수여식에 참석.

시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30일 오후 4시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영천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은 30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진행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중단대순진리회 성주회)에 참석.

인삼산업발전유공 표창 수여식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30일 오후 2시 군청에서 열리는 인삼산업발전유공 표창 수여식에 참석.

인사권 협약식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30일 오전 11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청양군-청양군의회 인사권 협약식에 참석.

하반기 정부포상 수여식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30일 오후 1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2021년 하반기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

임업인전문학교 최종보고회
함영준 강원 고성군수는 30일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임업인전문학교 다량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이장협의회 장학금 전달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는 30일 오전 9시30분 군수실에서 양양군 이장협의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 받는다.

군정발전 유공 포상 수여식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30일 오후 2시 이리강선에서 열리는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 포상 수여식에 참석.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보령 학력 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겨울방학 대학생 보배샘 15명을 선발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겨울방학 대학생 보배샘 15명 위촉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은 지난 보령 학력 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겨울방학 대학생 보배샘 15명을 선발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대학생 보배샘에게는 교육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생들에게는 방학 중에도 학습과 돌봄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과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15년부터 고향 단성면에 성금

강성근(78·사진) 전국산청향우연합회 회장이 경남 산청군을 찾아 향토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 등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정선군청 강원대학교 동문회

인재 육성 장학금 200만원 전달

강원 정선군청 강원대학교 동문회에서 29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최승준 이사장(정선군수)에게 전달(사진)했다.



순천중앙병원 '작은사'에서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순천시, 기부행렬 온기 가득 찬 '장천동 나눔공간'

순천중앙병원 생필품 등 전달

전남 순천시 '장천동 나눔공간'에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행렬이 잇따르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고향인 단성면을 향한 기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년째 이어오고 있다.

강흥군 의좋은 고씨 삼형제, 모친 칠순잔치 대신 '나눔 실천'

성금 100만원·백미 10포·훈제오리 5박스 등 기탁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전남 장흥군 용산면 두암마을 고씨 삼형제의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감동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전남 장흥군 용산면 두암마을 고씨 삼형제가 모친 칠순 잔치 비용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진용북 경기도의회 부의장, 용인소방서 119안전센터 격려 방문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힘쓸 터”

진용북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용인 3)은 최근 겨울철 화재와 한파 등 재난발생 급증에 따라 일선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고차 용인소방서 구급·기흥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진용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최근 겨울철 화재와 한파 등 재난발생 급증에 따라 일선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고차 용인소방서 구급·기흥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부림저축은행, 세계 각국 유물·미술품 정선군에 기증

World Vintage Collection 기증 협약

강원 정선군과 부림저축은행은 29일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World Vintage Collection 기증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 정선군과 부림저축은행은 29일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World Vintage Collection 기증 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 조도면, 48개 마을 사진 제작 배부 눈길

마을 변천사 자료로 활용 계획

전남 진도군 조도면이 48개 마을에 마을 전경 사진을 제작·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이 48개 마을에 마을 전경 사진을 제작·전달했다.

이재명 안양시의원, 노약자·장애인 사고보험 지원 대책 촉구

“전동보조기기 사고 제대로 된 보험혜택 받아야”

이재명 경기 안양시의원(호계1·2·3동·신촌동·사진)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약자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 안양시의원(호계1·2·3동·신촌동·사진)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약자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인천 동구, 제11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3대 전략 60개 역점사업 추진 호평

인천 동구가 최근 제11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안전시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사진)했다.



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어린이가 안전하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포토뉴스



보령교정협의회, 시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충남 보령시는 전날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보령교정협의회장 정운 스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월발전본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500만원 전달
한국남동발전(주) 영월발전본부는 최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4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령초 69회 동창회, 사랑의 집 성금 기탁
경남 의령초등학교 69회 동창회는 연말을 맞아 최근 지정면 소재 여성지역장애인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미산교구 사회복지회 사랑의 집에 성금 112만원과 사랑의 케어를 전달했다.



한국여성농업인 손양면회, 양양군에 장학금 전달
한국여성농업인 손양면회는 최근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철원군 잠곡리 ASF거점소독소 근무자, 이웃성금 기탁
강원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담당 ASF거점소독소 근무자들은 최근 군청을 방문해 실시일로 모은 이웃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파주시-GC복합지리정보센터, 업무 협약식 체결
경기 파주시는 전날 GC 복합지리정보센터와 인사선별검사소 2곳(문정, 문산)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산금빛시장 상인회, 어려운 이웃 돕기 물품 기탁
충남 금산금빛시장 상인회는 전날 군에 10kg 쌀 100포,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랜드 노조, 정선군에 연탄 기탁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29일 정선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최승준 군수에게 희망나눔 캠페인 연탄 5000장(380만원 상당 쿠폰)을 기탁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서길원 大記者의 독자와 함께 詩 읽기

아버지의 속 사랑

선달 그림밤

-이기윤 작

함께 덮고 자던 이들을 내아가
 들들 깊고 혼자 잔다 잠결에
 나는 또 아버지들을 뱃터 창창
 용에 갇고 잔다.
 아버지는 혼자 아버지를 덮고 주무신다.
 아버지는 이불이 추우신지
 몸을 웅크리고
 기침 마른 기침을 하신다.
 깡뭇 잠이 들버린 뒷마당

모피의 피상나 푸른
 허물게 눈썹이 새끼고
 내나이 한살이 목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는 선달 그림밤
 긴 밤 꿈을 꾸며
 꿈을 잃어가며 밤새도록 지름나는
 아버지가 되려는 중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이듯한 환호에 두뇌



이기윤 시인(1954년~2009년)
 부산 강서구 갈대섬 '중사도' 출신으로 육사 33기로 3학년 때(1977년) 첫 시집을 내고, 1997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

《함께 읽기》자식이 위험한 곳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앞서 달려 나가 눈물로 깨이며 "아아구, 내 새끼! 살아 돌아왔구나!"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한 걸음 뒤 걸어 나와 한껏 감정을 죽인 채, "애썼다" 한 마디로 끝낸다.
 그때 어머니는 감정을 '문장', 아버지는 '단어'로 전한다는 표현을 쓰다가 본다. "함께 덮고 자던 이들을 내아가/들들 깊고 혼자 잔다 잠결에/나는 또 아버지들을 뱃터 창창 용에 갇고 잔다" 모든 자식은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존재라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등골을 빼앗아 가며 살아간다. 아들도 나중에 그의 아들에게 빼앗기며 살아갈까. "아버지는 혼자 아버지를 덮고 주무신다./아버지는 이불이 추우신지/몸을 웅크리고/기침 마른 기침을 하신다" 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초라하고, 위풍도 안쓰러워 보인다. 덮고 있는 이불도 춥고 스스로 이불된 그 모습은 더욱 춥다. 덮고 자던 이들을 아들에게 빼앗기고도 오히려 잠자리를 다투어주는 모습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다.
 "깡뭇 잠이 들버린 뒷마당/피오의 피상나 푸른/허물게 눈썹이 새끼고/내 나이 한살이 목에 걸려/잘 넘어가지 않는 선달 그림밤" 선달 그림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허물게 새끼는 말이 있다. 선달 그림밤이 애늬는 까닭은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때문이다.
 "긴 밤 꿈을 꾸며/꿈을 잃어가며 밤새도록 지름 나는/아버지가 되려는 중이다" 아버지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잠이 자야 할 삶의 무게를 느끼며 살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자와 아들 사이/그이듯한 환호에 두뇌" '나'는 나이는 먹었으나 아직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회상과 사랑과 배려심을 아버지만큼 갖지 못했다는 표현인가 보다. 어머니를 끝까지 한 사는 딸지만 아버지를 노란 사는 딸지 않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당연히 오늘 찾아뵙거나 전화라도 안부를 물어보았지요. 비록 "왔어" 한 단어만 들리지만, 자식 차 소리에 어머니 뒤에 나온 아버지의 침묵이 담긴 속 사랑을 느껴 보시길.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진,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농빌딩)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9-4360 / 홈페이지 www.jeonmae.co.kr

저탄소 농업

기고



오성진

농협중앙회교육원 교수

로 배출한 만큼 감축한다는 의미이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농업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농업 부문에서는 크게 집소질 비료 투입과 폐기물 소각, 농업활동용 연료 사용, 가축의 소화활동과 분뇨 등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탄소 농업은 농업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을 말한다.

그래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계속 개발되고 있다. 논물을 알개 맨다가 지열을 이용해 보온하는 지열히트펌프, 하우스의 비닐 겹을 다중으로 설치하거나 물을 비닐 겹 사이에 흘려 보온하는 방법, 그리고 가축분뇨를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2021년 4월까지 정부에서는 저탄소 농산물에 대한 인증 확대 농업인과 단체를 모집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증을 받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저탄소 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널리 팔려야, 그래서 저탄소 농업으로 농사를 지어도 기존 농산물에 비해 오히려 낮은 인식이 농업인 사이에서 퍼져야 저탄소농업이 활성화된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행농업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했기에 저탄소 인증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비쌀 수 있는, 가격의 한계점이 있지만 이런 '착한 소비' 시대이다. 특히 MZ세대가 소비의 주축으로 등장하면서 착한 소비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착한 소비의 특징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상품이 더욱 대상이 되는데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이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농업인만으로는 어렵다. 유통기관과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농업인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유통기관에서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만으로 농산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까지 포함해서 평가하고 소비해야 한다. 그럴 때 자기도 살고 농촌도 살며 소비지도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한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국매일신문 www.jeonmae.co.kr

발행: 편집: 안재민: 회장: 박종문: 사장: 박종필
 논설부장: 김연식: 편집국장: 실용본: 편집국장: 이일영

대표전화: 1588-5762

정 치 부: 031-755-5600 지 방 부: 031-755-5622
 경 제 부: 02-749-0923 광고문의: 070-4325-3668
 사 회 부: 031-755-3484 FAX: 031-759-4360

전국취재본부

서울본부: 02-749-0922 강원본부: 033-251-4666
 인천본부: 032-751-1478 충남본부: 041-669-3722
 경기북부본부: 031-967-1616 충북본부: 043-255-8877
 대구본부: 053-471-1111 호남본부: 061-742-8181
 경남본부: 055-761-7882 제주본부: 064-723-1950
 세종본부: 044-865-80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농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1(영등포동, 덕신빌딩)

1997년 6월 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
 본사등록사: 중구 오영일(보사) 조선문보
 구독료: 월 1만6,000원 /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설

개발국도 코로나 극복 백신 공유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발생해 순식간에 유럽을 거쳐 세계 100여 국가로 확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부유 국가의 시민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백신이 남아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정이 약해 백신을 구하지 못해 접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지구상에서 쫓아내기 위해선 부유 국가에서 개발국가까지 전세계가 백신을 공유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심각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이미 '국제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서도 확인된다. 남아공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 변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등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웰컴생약연구소의 제프리 배럿 코로나19 유전학 연구소장은 오미크론이 "유레가 없는 변이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알파 변이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처음 검출돼 12월 '우려 변이'로 지정됐다. 베타는 지난해 5월 남아공에서 처음 확인됐지만 지난 4월에야 '관심 변이'로 지정됐다. 감마는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처음 확인돼 올해 1월에 우려 변이가 됐으며, 델타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됐지만 지난 4월에야 '관심 변이'로 지정됐다. 감마는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처음 확인돼 올해 1월에 우려 변이가 됐으며, 델타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됐지만 지난 4월에야 '관심 변이'로 지정됐다. 감마는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처음 확인돼 올해 1월에 우려 변이가 됐으며, 델타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됐지만 지난 4월에야 '관심 변이'로 지정됐다.

특히 우려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지는 아프리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이워월드 인 데이타'의 대륙별 백신 접종 완료율을 보면, 아프리카가 평균 10% 미만으로 가장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57.8%), 남아메리카(54.4%), 오세아니아(54.6%), 북아메리카(54.5%), 아시아(47.8%)와 비교하면 지열을 만들 못한 수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된 보츠와나의 백신 접종 완료율 역시 20%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감염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에서 새 변이가 발생해,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전세계가 백신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별 국가가 백신을 독점하면서 국경을 통제한다고 코로나19 대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국제 여행객 규모를 봐도 알 수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 통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이동이 거의 중단되면서 지난 4년 4개월에 국제 여행객은 388만명에 이르렀다.

이런 규모의 이동 인구를 공항 등에서 검사해 바이러스 유입을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구촌에 코로나19 대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은 아프리카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빠르게 백신을 공급하고, 보건 체계 강화를 지원하는 길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의 '백신 공급동맹' 공동의장인 아요데 알라카바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백신 제공과(아프리카) 자체 백신 생산을 부자 나라들에 간청하고 애원했지만 거부 당했다"며 "답은 여행 금지가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시급한 백신 접종"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유 국가들은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마치고 4차 접종을 준비한다니 저개발국가와 너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도입했던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이 언제 시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대응 팀은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고령자와 의료진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보건부가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종 승인자인 나프탈리 아히 요르디안총리에서 승인을 마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원 사자, 호랑이 등 동물들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 저개발국에서 보면 접종이 부러기만 하다. 접하지 못한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MZ세대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별 나라별 부스터샷에 4차 접종을 한들 저개발국에서 변이 발생하면 지구촌 전체로 확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나라 재정이 탄탄한 부유 국가들이 2차에 이어 3차 접종에 끝낼지라도 보건 환경이 열악한 저개발국에 발생하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것이 지구촌의 현주소다.

월급으로 내 집 장만하기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2030을 위한 부자 내비게이션

'월급으로 내 집 장만'이 꿈같은 이야기라고? 아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된다면!

27세에 집 2채, 상가 1채 주인이 되다
 # 나를 살게 해준 건 월급,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건 월세
 # 월급으로 집을 사는 방법, 부자가 되기 위한 정신무장법,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

이하나 지음 | 284쪽 | 14,000원

화제의 신간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집요한 부동산자산관리 **내집내집**

이사 가고 싶은 그 집. 마음에만 담아둘 건가요?

시세변동알림에서
예상수익률, 세금계산까지
집요하게 입체분석!



집요한 부동산 정보
KB 부동산



* 기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금융상담팀(1644-9571)으로 문의하시거나 KB부동산 홈페이지(http://kbland.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1-3200-4호(2021.11.25) 광고물 유효기한 2022.06.30까지